

성결대학교 자체평가연구보고서

2011. 12

성 결 대 학 교



< 목 차 >

제1장 자체평가 개요	5
1. 자체평가 개요	6
1.1. 자체평가의 목적	6
1.2. 자체평가의 추진방향과 목표	10
1.3. 자체평가 방법	16
제2장 대학의 현재와 미래	20
2. 대학의 현재와 미래	21
2.1. 성결대학교의 비전	21
2.2. 발전을 위한 사업 개황과 지향점	22
2.3. 성결대학교 성장관리시스템	24
2.4. 자체 평가 모형	31



제3장 자체평가 결과 32

1.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33

1.1 대학사명 및 교육목표 35

1.2 발전계획 37

2. 교육 43

2.1 교육과정 46

2.2 교수·학습 60

2.3 학사관리 63

2.4 교육성과 70

3. 대학구성원 75

3.1 교수 78

3.2 직원 97

3.3 학생 100

4. 교육시설 109

4.1 교육기본시설 110

4.2 교육지원시설 118

4.3 도서관 122

5. 대학재정 127

5.1 재정확보 129

5.2 재정집행 137

6. 사회봉사 및 특성화 143

6.1 사회봉사 및 특성화 145

제 1 장 자체평가 개요

- 5 -

1. 자체평가의 개요

1.1 자체평가의 목적

- 2011년도 우리 대학의 자체평가는 대학이념 달성에 필요한 대학 내부의 제반 요소들을 점검함으로써 기독교 명문 사학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다.
- 「고등교육기관의평가인증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21163호:2008.12 제정)에 근거, 2013년까지 신청할 대학기관평가인증제(이하 ‘대기평’)의 이념적 토대를 마련하고, 『2009년도 자체평가보고서』의 연장선에서 대학정보공시의 기준에 맞도록 필요한 지표들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1.1.1 추진 배경

- 대학정보 공시제도의 시행

- 6 -

- 2007년 5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정
- 위 법에 의거, 대학의 장의 정보 공시 의무(특례법 6조)에 따라 대학의 교육·연구에 관한 주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고, 공시 정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대학의 자체평가

- 2009년 1월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즉,
 -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와 학교의 장이 해당 기관의 교육·연구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해당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사전 평가 작업

- 7 -



- 2009년 1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13년까지 우리 대학의 평가·인증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 위 규정 제2조 ①항에 의거, “인정기관이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에는 해당 학교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점검·평가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우리 대학의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1.1.2 발전의 가속화를 위한 자체 점검

2011년도 자체 평가는 2009년에 우리 대학의 정보를 공시한 이후 2년이 경과함에 따라 최근의 정보로 그동안의 추진사업과 개선사항을 알리기 위해 작성되었다. 2009년의 자체평가보고서는 우리 대학의 『성결비전 2022 중장기 발전계획』의 토대가 되었다. 성결비전 2022 중장기 발전계획의 핵심적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수도권교육 중심 10위권 대학’ 비전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점검과 실천방안의 구체화
- 국제화 수준에 합당한 교육 여건의 전반적 개선방안 도출

- 8 -



- 교수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와 지원 여건 개선
- 교내 제반 시설 인프라와 행·재정 체제의 국제화에 대비한 혁신
- 국제화, 경쟁화 심화에 대비한 대학특성화 전략의 기초자료 마련

『성결비전 2022 중장기 발전계획』은 향후 우리 대학의 지향점이다.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우리 대학의 각종 지표들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시함으로 국민에게 우리 대학의 대학이념과 각종 교육 여건을 알리고 우리 대학의 대내외적 경쟁력을 강화하므로 글로벌화에 따른 대학의 외연을 확장하여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

1.2 자체평가의 추진방향과 목표

1.2.1 자체평가의 목표와 과제

2011년 우리 대학의 자체평가의 추진방향과 목표는 2009년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성결비전 2022 중장기 발전계획』을 근간으로 추진하며 지속적으로 현실 변화를 계획안에 투사하여 실천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목표와 과제는 아래와 같다.

○ 목표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SKU - 글로벌 명문사학**’으로의 도약

‘**SKU - 글로벌 스탠다드(GS)**’ 대학으로의 도약

○ 과제

- ‘글로벌 명문사학’으로 도약 위해 우수교수의 확보 및 우수학생 유치
- 정보공시제에 부응한 학교경영의 수월성 확보 및 교육성과 검증시스템 구축

- 취업률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교육과정 도입 및 취업지원정책의 실현
- 대학을 둘러싼 환경변화, 즉 경쟁 가속화를 적극 수용하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비의 환원율을 제고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교육시스템 구축

1.2.2 자체평가의 역점 사항

- 2011년도 우리 대학 자체평가는 『성결비전 2022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2009년도 정보공시에서 제시되었던 다섯 가지 역점 사항의 실적을 점검하여 향후 2013년까지 기관인증을 받을 수 있는 사전 준비에 역점을 두었다.
- 2009년도 자체평가의 역점사업과 그 세부 사항
 - 글로벌 교육환경에 맞춘 교육 역량 강화
 - 비약적 연구 성과 달성
 - 선진적 행정 실천과 재정 확충
 - 첨단인 우수한 교육 시설과 인프라
 - 경영, 재정, 특성화, 교육, 교수, 행정·직원, 학생, 시설, 복지, 홍보의 10대 분야별 30개 역량관리

- 11 -

- 글로벌 교육환경에 맞춘 교육 강화

학생 · 교육역량강화분야	
우수학생 총원	· 수능 성적 1·2등급 우수장학생 적극 유치 · 입학사정관제 도입으로 창의력 잠재능력 갖춘 미래형 인재 유치
우수인재 배출	· 성결교육인증제 도입으로 영어·외국어·직무능력 자질 갖춘 실무형 인재양성 · 전공만족도·취업률 높은 자랑스러운 글로벌 인재 양성



교육 재정 확충
질적 교육과 실무중심 교육과정 개편



우수학생 총원 : 수시전형 합격생 평균 1.5등급(내신 기준)
우수인재 배출 : 100m 한국신기록 수립 체육교육과 육상 국가대표 여호수아(체교), 뽕슬레이 국가대표 원운중(체교)

- 12 -

○ 비약적 연구 성과 달성

교수 · 연구진흥분야	
우수교수 초빙	· 연구교수 신규박사 임용 특채 · 스타교수 확보 · 원어민 교수 충원시 학문분야 전공의 전문성 요건 강화
연구진흥 추진	· 성결교육인증제 도입으로 영어·외국어·직무능력 자질 갖춘 실무형 인재 양성 · 전공만족도·취업률 높은 자랑스러운 글로벌 인재 양성



교수임용의 다양화와 연구 인센티브 강화
원어민 교수 및 강의전담 교수의 연구실적 요구



원어민 교수 채용 : 2011.9월 기준 33명 재직 중
강의전담 교수의 연구실적을 인정함

○ 선진적 행 · 재정 실천

행 · 재정 분야	
행정의 효율화 · 업무의 적절성	·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 One-Stop, One-Click 통합민원센터
재정운영의 내실화 · 선택적 집중	· 등록금 환원률 개선 · 교육·교수·특성화 분야의 선택적 집중과 지원을 통한 경쟁력 우위 확보



직무분석(HRD)도입으로 구성원 보유역량의 효율적 활용
발전기금확충과 재단전입금 확대, 수익구조의 다변화



등록금 환원을 상향 조정 : 2009(81%), 2010(81.3%), 2011(82.5%)

○ 첨단의 우수한 교육 시설과 인프라

첨단의 우수한 교육 시설과 인프라	
교육환경 개선	· 캠퍼스 동선의 과학적 배치 · 건물별 특화된 조경과 학생들의 활동·휴게공간 확보
첨단교육 지원시설	· 강의실 규모와 용도의 다양화 · 최첨단 기자재 구비한 강의실과 학습환경



지하주차장 조성	과 학생활동·휴게공간 마련으로 환경과 복지 향상
첨단강의실	· 다양한 규모와 시설의 강의실(토론식 강의실, 수업행동분석실)구비



교육환경 개선	: 학술정보관 지하주차장 조성, 커피전문점 카페베네 교내 유치
교육지원 시설 확충	: 중생관 409호 수업행동분석실 신설, 학술정보관 멀티 세미나룸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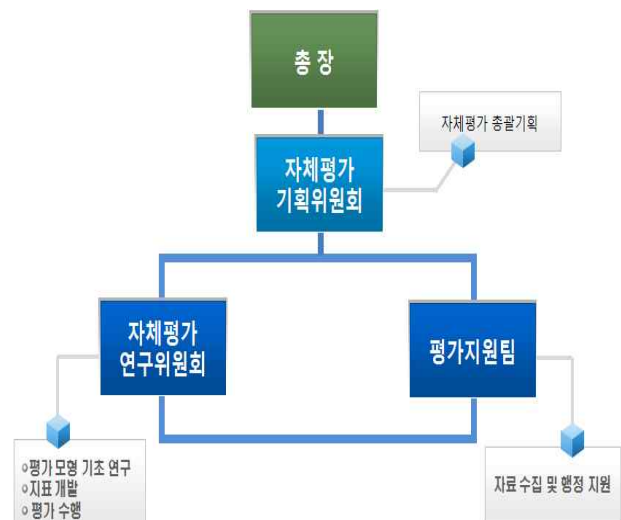
1.3 자체평가 방법

1.3.1 자체평가의 추진체계 및 절차

1.3.1.1 자체평가 추진체계 및 조직

2011년도 우리 대학의 자체평가는 총장을 정점으로 자체평가기획위원회, 자체평가연구위원회, 평가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추진되었다.

자체평가기획위원회는 교무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동일하다. 자체평가연구위원회는 각 영역별로 전공을 고려하여 교수인력을 배치하였다. 평가지원팀은 행정직원으로 구성하여 행정적인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도록 하였다. 그 구체적 기능과 조직은 아래와 같다.



○ 대학자체평가기획위원회

- 구성 : 교무위원 전원
- 업무
 - 자체평가를 위한 기본 방향과 전략의 수립
 - 자체평가를 위한 인적·재정적 지원
 - 평가결과에 따른 대학교육의 개선안 심의
 - 대학구성원에 대한 자체평가 홍보와 참여 유도

○ 대학자체평가연구위원회

담당 영역	연구위원	실무위원	비고
총괄	임 경 수	강 찬 우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오 현 철	김 병 호	

<표계속>

담당 영역		연구위원	실무위원	비고
대학구성원	교수, 직원	진 성 아	조 의 환	
대학구성원	학생	서 혜 영	나 상 수 이 영 관	
교육	교육과정			
교육	교수·학습, 학사관리, 교육성과	이 준 서	이 영 란 임 영 규	
교육 시설		김 기 범	김 창 수	
대학재정 및 경영		라 휘 문	박 정 태	
사회 봉사		오 현 철	김 병 호	
서 기			김 병 호	

- 업무

- 자체평가 실질 지표 및 기준개발
- 자체평가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분석
- 자체평가 전산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방안 제시
-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1.3.1.2 자체평가 추진 절차

○ 2011년도 대학 자체평가는 아래의 일정에 따라 추진되었다.

일정	추진사항	비고
10월	- 2011년 성결대학교 자체평가연구위원회 발령(10/15) - 성결대학교 주요 지표 관리계획 수립(10/30)	
11월	- 기관평가 인증 주요지표 분석결과와 기존 자체평가 보고서 비교, 대조 - 2011년 성결대학교 자체평가 방향 설정 - 영역 설정 및 평가모형 수립 - 영역별 요구자료 및 표 자료 작성 및 제출 - 1차 보고서 초고 완료(11/25)	
12월	- 2차 보고서 초고 완료(12/2) - 연구위원회 윤독(12/7) - 내용수정 및 검토, 보완(12/8~9) - 기획위원회 윤독(12/12) - 최종보고서 완료 및 총장 결재(12/13) - 자체평가보고서 인쇄 의뢰(12/14) - 정보공시 사이트 탑재(12/16)	

제 2 장 대학의 현재와 미래

2. 대학의 현재와 미래

2.1 성결대학교의 비전

- 우리 대학은 국가사회의 발전을 선도하는 특성화된 대학 위상 정립을 위한 거시적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SKU - 글로벌 명문사학’으로의 도약
‘SKU - 글로벌 스탠다드(GS)’ 대학으로의 도약



2.2 발전을 위한 사업 개황과 지향점

- 우리 대학은 거시적 비전 구현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내용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 정기적 외부 평가에 적극적으로 부응
 - 주체적인 발전 전략의 수립·실천
- 이러한 노력을 종합하여 「성결비전 2022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시대적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를 대학 발전 전략에 적극적으로 반영
 - 비전 구현을 위한 거시적 지향점 설정
 - 장기적 발전 계획 수립을 통한 효율성 제고
-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우리 대학이 추진해 온 주요 사업을 간추려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참고표 2.2.1>

학년도	보고서 제목	출판일	비고
2008	경쟁력강화 추진방안 보고서	2월	
	성결대학교 신학대학(원) 발전추진방안보고서	2월	
	특성화 기본계획 DAVID(Dream and vision for distinction)	8월	
	각 학부(과)별 특성화 사업 신청	10월	
2009	2009년도 성결대학교 일반대학 교직과정 자체평가 보고서	6월	
	성결비전 2022 중장기 발전계획	8월	
	2009 교육개혁 보고서	8월	
2010	2010 성결대학교 교원양성기관 자체평가 보고서	8월	
	2010 성결대학교 마스터플랜 1차보고서(자문추가본)	12월	
2011	2011 성결대학교 캠퍼스 마스터플랜 보고서	4월	
	2011 성결대학교 교원양성기관 자체평가 보고서	6월	
	2011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보고서	8월	

2.3 성결대학교 성장관리시스템

2.3.1 의의

- 성결대학교 성장관리시스템은 「성결비전 2022 중장기 발전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모형으로서 개발된다.
- 이 모형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기본 조건들을 점검하며 대학의 대학이념 달성을 위한 특성화전략을 반영한다.
- 성장관리시스템은 기존의 평가제도를 수용·보완하여 대학의 모든 구성 요소들의 현황과 성취도를 측정한다.



- 이를 바탕으로 개선과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도출하여 다음 단계에 반영한다.

2.3.2 성결대학교 성장관리시스템 개발 기준

- 성결대학교 성장관리시스템은 아래에 제시된 요소들을 중심으로 요소별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설계된다.
 - 평가 지표
 - 평가 기준
 - 평가 방법
 - 결과 처리 절차

2.3.2.1 평가 지표

- 총체성 기준
 - 평가 지표는 대학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빠짐없이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구성·개발한다.

- 25 -

- 역동성 기준
 - 평가 대상의 고유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잘 반영되도록 특성에 맞도록 구성·개발한다.
 - 평가 대상의 특성 및 변화의 추이가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지표와 계산식을 개발한다.

2.3.2.2 평가 기준

- 보편성 기준
 - 세계적·국가적 수준과 요구를 고려하여 반영함으로써 객관성과 보편성을 획득한다.
- 합리성 기준
 -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높으면 무기력증에 빠질 우려가 있으며, 반대로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낮으면 발전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학의 현실을 기반으로 발전을 유도하면서 성취 동기를 제공하는 적절한 평가 기준을 설정한다.

- 26 -

2.3.2.3 평가 방법

평가 방법은 평가 대상과 지표에 따라 가변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평가 지표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 Roadmap 기준 성취도 평가

- 거시적 master plan을 기준으로 시행 시기를 나누고 각 시기별로 이룩한 성취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 직전 단위 시기 대비 성취도 평가

- 지표에 따라서는 절대 목표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평가 시기의 성취도를 직전 단위 시기의 성취도와 비교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성취도가 누적적이고 복리적으로 계산된다는 점에서 긍정적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매우 빠른 변화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적용 대상을 결정한다.

○ 목표 대비 성취도 평가

- 설정된 절대 기준에 비추어 직전 평가 시기보다 일정한 향상을 이루었을 때에 긍정적인 값을 매기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최소한의 발전도 긍정적인 값을 산출하게 된다는 점에서 평가 지표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될 필요가 있다.

2.3.2.4 평가 결과 처리 절차

우리 대학의 평가의 목적은 관리나 통제가 아니라 발전을 위한 동기 부여에 있는 까닭에 평가 결과는 구성원들에 의하여 공유되어야 하며, 향후 사업 계획에 적절하고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하고자 한다. 이런 차원에서 S-DMS에서 각 영역별로 2010년에 평가 환류되었던 결과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구 분	세 부 사 항
교수업적평가	- 교수업적평가는 매년 정확하게 Feedback되어 승진, 재임용, 정년보장 등에 반영 - 우수 교수 인센티브 부여: 평가결과 강의부문과 연구부문의 우수교수 매년 표창, 인센티브 부여
기관평가	- 정부의 모든 기관평가에 적극적으로 수용, 대학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승화 - 2011년 교원양성기관 평가 사범대학, 교직과정 부문 평가 인준(B등급)
행정역량평가	- 2011년 대학법인이 우리 대학의 행정역량 및 대학경영에 관한 전반적 자문을 컨설팅 기관에 의뢰, 수행중임(한국경제예측연구소, 이사회 회의록 2009-5차, 12.14)
부설기관평가	- 다문화평화연구소가 한국연구재단에 학술지 평가를 신청한 상태임 (결과는 12월 말 예정) - 우리 대학 부설연구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중임
과제수행평가	- 외부 용역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용역과제의 등재(후보)지 학술논문게재는 객관적 평가를 거친 것으로 인정,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하고 있음

한편 S-DMS의 실질적 집행과 이의 feedback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 정보보호 기준

- 평가 결과는 privacy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한다.

○ 투명성 기준

- 정보의 수준을 구별하여 직위에 따라 해당 수준의 정보를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발전지향성 기준

- 평가 결과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성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원 수단과 방법의 도출을 위해 활용한다.

2.4 자체 평가 모형

- 2011년도 우리 대학의 자체평가는 국가의 고등교육기관 경쟁력 강화 정책에 부응하면서 2013년 기관인증평가를 받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의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 자체평가 모형은 2009년 자체평가보고서에 선택된 지표와 기관인증평가의 필수평가지표를 더하여 설계되었다.
- 『2009년도 자체평가보고서』에서 제시되었던 지표 중 필수공시지표에 대해서는 객관성과 보편성 확보를 위하여 대기평 기준값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 또한 성결대학교 성장관리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로서 우리 대학의 특성화 전략을 반영하는 지표들을 포함하였다.
- 2011년 자체평가보고서는 2009년도의 지표와 중복되는 것은 그간의 성장과 발전 추이를 반영하고 대기평 지표로서 새롭게 포함된 지표들은 객관적 측정을 통해 평가의 합리성을 제고하였다.

우리 대학의 자체평가 - 기관인증을 위한 대학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 점검
- 학교 전체 평가 모형(성장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및 점검
- 2009 자체평가지표의 성장 정도의 비교분석 및 새로운 지표 개발

제 3 장 자체평가 결과

1.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1.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영역 평가결과

평가 영역	평가 부문	평가준거	평가내용	기준 년도	기준값 (A)	현재 수준(B)	상대 점수(C)	비고
1.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1.1 대학사명 및 교육목표	1.1.1 교육목표	국가 사회적 요구반영	2011	3.5	4.0	100	정성1)
			명료성과 활용성	2011	3.5	4.5	100	
			교육목적과 목표 구분	2011	3.5	5.0	100	
	1.2 발전계획	1.2.1 발전계획의 수립	계획 실천 의지의 구체성		3.5	4.5	100	
		1.2.2 발전계획의 평가	평가 및 반영		3.5	2.0	57.14	
					영역평균값		91.43	

1) 정성지표를 5점 척도로 정량화함: 매우 충족(5), 충족(4), 보통(3), 미흡(2), 매우 미흡(1) 중 70% 수준인 3.5를 기준 값으로 정함.

평가영역 1.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대학은 대학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교육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 실현을 위한 교육목표를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대학은 교육목표 달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대학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상대적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 모색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은 대학교육 공급자로서 책무성을 다하기 위해 자체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교육의 질 보증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 평가부문

- 1.1 대학사명 및 교육목표
- 1.2 발전계획

평가부문 1.1 대학사명 및 교육목표

대학은 국가·사회의 요구 및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 그리고 학문적 요구 등을 반영한 교육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 실현을 위한 교육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모든 대학구성원들이 교육목표를 교육 실천의 지표로 삼도록 하는 등 대학 나름의 사명 완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1.1.1 교육목표

대학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명료한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교육목표를 교육실천의 지표로 삼고 있다.

■ 평가내용

국가 사회적 요구반영
명료성과 활용성
교육목적과 목표 구분

○ 분석결과

- 1영역은 정성평가이나 5점 척도로 정량화함
- 우리 대학의 교육목적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가 사회적 요구반영지표를 충족하고 있다고 평가함
 - 우리 나라의 대학교육이 양적인 확대 단계에서 질적 수준 보장이 강조되는 시대적, 국가적 요구(교과부, 『2010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정책 추진현황』)를 반영하여 재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 향상(『성결 2012 비전과 도전』, 『2005 자체평가연구보고서』)을 추구함
 -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종류도 세분되어 가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함(『2009 자체평가연구보고서』, 『2011 성결대학교 요람』)
- 교육목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개념이 매우 명료하게 기술되었고, 각 목표에 따른 실천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2011 성결대학교 요람』)
- 교육목적 실현을 위한 교육지표로 교육목표를 구분해 제시함(『2011 성결대학교 요람』)

○ 개선방향

- 우리 대학의 대학 이념을 국가 사회적 요구 반영에 따라 실천하기 위한 교육목표의 지침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나 구성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그 활용도를 높여야 함

평가부문 1.2 발전계획

대학은 요구분석에 근거한 실현가능한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대학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대학은 장단기 발전계획의 성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육 및 대학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1.2.1 발전계획의 수립

국가대학의 장단기 발전계획은 대학구성원의 요구분석 등에 근거하여 수립되어 있다.

■ 평가내용

계획 실천 의지의 구체성(연도별 달성수준 명시 여부)

○ 분석결과

- 발전전략과 특성화를 구분함. 특성화는 최신 기관평가인증편람이 학과특성화는 인정하지 않고 전체 차원 특성화(우리 대학의 경우 사회봉사)를 요구하므로 6영역 사회봉사와 통합해 기술하고 여기서는 발전전략만 다룸
- 발전계획은 단기(2009-2012), 중기(2012-2017), 장기(2017-2022)로 연도별 달성수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성결비전 2022 중장기 발전계획』 1편 4장 목표별 성과지표, 4편 2장 추진일정 참조)
- 발전계획은 학생대표들과의 인터뷰, 표본 집단 설문, 위원회 토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교수, 직원, 학생 등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립하였음(『성결비전 2022 중장기 발전계획』 2편 이해관계자별 발전전략 참조)

○ 개선방향

- 『성결 2012 비전과 도전』은 사회봉사를 2대 발전전략의 하나인 특성화 전략으로 삼아 2003-2005년을 혁신도입기, 2006-2008년을 성장기, 2009-2012년을 안정기로 설정하고 있고, 『2009 자체평가연구보고서』도 이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나 최신 발전계획인 『성결비전 2022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연계나 강조가 충분하지 않음으로 향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1.2.2 발전계획의 평가

대학은 장단기 발전계획의 성과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기적 평가를 통하여 그 결과를 교육 및 대학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 평가내용

평가 및 반영

○ 분석결과

- 발전계획에 대한 평가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대학이 추진해 온 주요사업(각종 평가보고서 및 발전계획, 본 보고서 제2장 대학의 현재와 미래(참고표 2.2.1) 참조) 수행 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반영됨
- 그러나 최근 자체평가연구보고서나 최신 발전계획이 명시한 대로(『2009 자체평가연구보고서』 4.2 평가결과 및 평가모형 활용계획 참조) 평가를 정례화하거나 상시화 하지 못함
- 중장기 발전구상 구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통해 발전계획의 평가 및 반영 요구(『성결비전 2022 중장기 발전계획』 4장 1절 참조)와 관련해서는 『성결 2012 비전과 도전』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추진단이 2004년 10월에 구성된 바 있음(『2005 자체평가연구보고서』 표 2-2-6 참조)
- 그러나 『성결비전 2022 중장기 발전계획』을 위한 전담기구 (가칭) “성결대학교 경영혁신위원회”는 제안만 되었을 뿐 설치되지 않음

○ 개선방향

- 컴퓨터공학부 특성화 사업처럼 연차별 평가(매년 자체평가, 기획처를 통한 외부총괄평가, 사업 종료 시점의 최종평가 등)를 통해 평가를 정례화, 상시화해야 함(아래는 컴퓨터공학부 특성화 사업결과 평가계획안)

<참고표 1.2.2.1>

평가방법	영역	평가지표
과정평가	과정 적절성	• 추진방향의 적절성 • 추진전략의 적절성
	구성원 인지도	• 구성원인지도
총괄평가	과정 적절성	• 추진방향의 적절성 • 추진전략의 적절성
	목표 달성도	• 특성화계획의 목표 • 특성화계획의 부문별 목표 • 연차별 사업계획 목표
	구성원 만족도	• 특성화계획 추진결과의 만족도

- 발전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발전계획의 연차별, 분야별 목표를 조정하거나 발전계획 추진전략을 수정하는 등 평가결과의 활용방안을 높이려면 중장기 발전계획의 추진과정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설치가 요청됨

2.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영역 종합토론 및 논의

대학은 대학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교육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 실현을 위한 교육목표를 명료하게 제시하며, 변화하는 대학 환경 가운데 상대적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 모색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우리 대학의 교육목적은 국가사회의 요구와 시대적, 학문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여 대학의 사명을 기술하고, 교육목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 개념이 명료하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각 목표에 따른 세부목표와 실천지침을 제시한다.

발전계획은 단기(2009-2012), 중기(2012-2017), 장기(2017-2022)로 연도별 달성수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성결비전 2022 중장기 발전계획』 1편 4장 목표별 성과지표, 4편 2장 추진일정), 학생대표들과의 인터뷰, 표본 집단 설문, 위원회 토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교수, 직원, 학생 등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립하였다(『성결비전 2022 중장기 발전계획』 2편 이해관계자별 발전전략 참조). 또한 교육목적 실현을 위한 교육지표로 교육목표를 구분해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계획에 대한 상시적 평가시스템이 충분치 않아 발전계획의 실천성 여부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운 점은 향후 보완해야 할 것이다.

○ 대학사명 및 교육목표

- 우리 대학의 대학 이념을 국가 사회적 요구 반영에 따라 실천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그 활용도를 높여야 함

○ 발전계획의 수립

- 우리 대학 2대 발전전략의 하나인 특성화 전략이 최근 보고서에서 충분히 연계되거나 강조되지 않는 점은 보완 및 강화가 필요

○ 발전계획의 평가

- 발전계획의 평가를 상시화, 정례화 그리고 전담부서를 통해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

2. 교육

2.1 교육과정 평가 결과

평가 영역	평가 부문	평가준거	평가지표	기준 년도	최소기본 요건	현재수준	상대 점수
2.교육	2.1 교육 과정	2.1.1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교양 교육과정 중 필수학점의 비율	2011	40.54%	48.17%	81.18
			전공교육과정 중 필수학점의 비율	2011	15.61%	12.61%	100
			부전공, 복수전공, 다전공 이수자 비율	2010	9.85%	10.21%	100
			수업계획표 제출 실적	2010	100%	100%	100
			수강신청 변경 비율	2010	22.34%	21.89%	100
			교육과정 개선 실적	2010	165.9건	180건	100
		2.1.2 산업체 요구에 기반한 교육과정 제공 2)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참여 학생 비율	2010	0.5%	3.05%	100
		2.1.3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 3)	재학생 대비 학점교류학생 비율	2010	0.2%	2.29%	100

2) 2개의 점검사항 중 1개 이상 통과 시 충족으로 판단

3) 국내대학과 학점교류 현황자료를 근거로 질적 평가를 동시에 수행하여 결과를 판정함.

평가 영역	평가 부문	평가준거	평가지표	기준 년도	최소기본 요건	현재수준	상대 점수
2.교육	2.2 교수 학습	강좌당 학생수	20명 미만 강좌 개설 비율(%)	2011	25%	34.1%	100
			100명 이상 강좌 개설 비율(%)	2011	2.5%	0%	100
	2.3 학사 관리	성적관리	전공과목 A학점 비율	2010	42.02%	46.38%	90.60
			교양과목 A학점 비율	2010	35.94%	41.13%	87.38
			성적정정 횟수 비율	2010	5.00%	5.50%	90.91
		수업평가	전임교원 4.01이상 수업평가 교원비율	2010	80%	81.73%	100
			전임교원 3.50이하 수업평가 교원비율	2010	10%	1.60%	100
		학생상담 및 관리	교수 1인당 상담실적	2010	20건	22.01건	100
	2.4 교육 성과	졸업생의 취업률	졸업생의 취업률	2011	45%	47.2%	100
						영역별 평균	97.01

평가영역 교육

대학은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합리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성과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대학은 엄격하고 합리적인 학사관리를 통하여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한편 교육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대학은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배출하고 있다.

■ 평가부문

- 2.1 교육과정
- 2.2 교수·학습
- 2.3 학사관리
- 2.4 교육성과

평가부문 2.1 교육과정

대학은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발전하는 학계의 성과와 사회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의 대학과의 교류를 통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력하고 있다.

2.1.1 교양 및 전공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대학은 교양교육과정을 학문적·사회적·시대적 요구 및 대학의 인재상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편성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대학은 학생의 입학 후 졸업까지 달성될 역량 개발을 위한 전공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2.1.1.1 교양 및 전공교육과정의 편성·운영 : 교양 및 전공교과과정 중 필수학점 비율

평가준거	평가지표	기준 년도	최저 이수요구 학점수				기준값 (A)	현재 수준 (B)	상대점수 (C)
			구분	필수 학점	선택 학점	학점계			
교양 및 전공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교양 및 전공교육과정 중 필수학점의 비율	2011	교양	303	326	629	40.54%	48.17%	81.18
			전공	91	636	727	15.61%	12.51%	100

【산출공식】

교양 및 전공교육과정 필수학점의 비율 (A) = 학부(과)별 필수학점 총 합계 (B) /
학부(과)별 최저이수요구 학점 총 합계 (D) × 100

※ 공학인증평가대상 3개 학부를 제외하였음.

※ 기준값(A) = 교양 15학점/37학점, 전공 6학점/42학점

○ 분석결과

- 교양과정 최저이수요구학점 중 필수학점의 비율은 평균 48.17%(공학인증대상 학부 제외, 나머지 17개 학부(과)는 18학점)로 pass 학점인 채플 6학기를 포함 하면 상당히 높게 나타남
- 전공과정 최저이수요구학점 중 필수학점의 비율은 평균 12.51%(공학인증대상 학부 제외, 나머지 학부(과)는 0~6학점)로 양호함
- 교양선택의 6개 영역 중 제4영역은 대부분 공학인증관련 과목으로 일반 학생들의 교양과목 선택범위가 제한된 편임

○ 개선방향

- 교양의 원래 의도와 학문적, 사회적 트렌드를 동시에 반영하는 다양하고 참신한 교양선택 과목을 개설해야 함
- 교양과정운영위원회 활동의 강화, 교과과정 변경 주기와 절차의 유연성이 필요
- 교양필수과정의 과다한 신학관련 과목(4학기 8학점+채플 6학기 0학점), 1학점 과목(Lab, 컴퓨터실습), 커리큘럼의 수준 조정 등 편성과 운영의 정비 필요
- 전임교수들의 교양과목 담당을 유도하여 수업의 질 향상과 협동강의를 통한 학제간 융합 등 다양한 시도 기대

2.1.1.2 교양 및 전공교육과정의 편성·운영 : 복수전공, 부전공, 다전공 이수 실적

평가준거	평가지표	기준 년도	다전공 이수자 수 (명)				재학생 수(명)	기준값 (A)	현재 수준(B)	상대 점수(C)
			부전공	복수 전공	교직	계				
교양 및 전공교육과정 의 편성·운영	복수전공, 부전공, 다전공 이수 실적	2010	120	131	149	400	3,917	9.85%	10.21%	100

【산출공식】

복수전공, 부전공, 다전공 이수 실적(B) = 다전공(부, 복수, 교직) 이수자수 / 재학생수 × 100

※ 기준값(A) : 전년도 대비 5% 증가

※ 재학생수에는 다전공 이수 대상자가 아닌 1학년을 제외함

※ 교직은 주 전공과 복수전공 대상자를 포함함

○ 분석결과

- 복수전공, 부전공과 교직을 포함한 다전공 이수자 비율은 10.21%로 최근 3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참고표 2.1.1.2> 최근 3년 다전공 이수실적

기준년도	다전공 이수자 수 (명)				재학생수(명)	이수비율
	부전공	복수전공	교직	계		
2010	120	131	149	400	3,917	10.21%
2009	107	129	120	356	3,796	9.38%

○ 개선방향

- 복수, 부전공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1학년부터 적성검사 및 진로탐색 상담을 실시하고 적극 권장
- 복수, 부전공이 집중되는 학부(과)에는 분반 기준을 완화하여 교육의 질 유지
- 규정에는 있으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야 함

2.1.1.3 교양 및 전공교육과정의 편성·운영 : 수업계획표 제출실적

평가준거	평가지표	기준 년도	수업계획서 제출 강좌 수			총개설 강좌수	기준값 (A)	현재 수준(B)	상대 점수(C)
			1학기	2학기	계				
교양 및 전공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수업계획표 제출실적	2010	1,201	1,198	2,399	2,399	100%	100%	100

2.1.1.4 교양 및 전공교육과정의 편성·운영 : 수강신청 변경비율

평가준거	평가지표	기준 년도	수강신청 변경건수	수강신청 총 건수	기준값 (A)	현재수준 (B)	상대점수 (C)
교양 및 전공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수강신청 변경비율	2010	17,804	81,341	22.34%	21.89 %	100

【산출공식】

수강신청 변경 비율(B) = 수강신청 변경 건수 / 수강신청 총 건수 × 100
 ※ 기준값(A) : 전년도 대비 5% 감소 값

○ 분석결과

- 모든 강좌에 대한 수업계획표는 100% 제출되고 있어 교과과정 운영의 내실화 노력을 보여주며, 수강신청 시 학생들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수강신청 변경비율은 전년도보다 1.63% 감소하였으며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감소하여, 교과과정이 적절하게 개설되었으며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음을 나타냄

○ 개선방향

- 단순한 수업계획표 제출비율 보다 계획표 내용의 충실도, 계획표에 따른 수업진행 등을 평가할 지표 개발
- 수치적인 지표를 지양하고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평가가 수반되어야 함

2.1.1.5 교양 및 전공교육과정의 편성·운영 : 교양 및 전공 교과과정 개선실적

평가준거	평가지표	기준 년도	교육과정 변경 교과목 수				기준값 (A)	총 개선실적 (B)	상대점수 (C)
			구분	교양	전공	합계			
교양 및 전공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교양 및 전공교과과정 개선실적	2010	변경	7	94	101	165.9	180	100
			폐지	16	15	31			
			신설	17	14	31			
			학생제안 과목개설	9	8	17			

【산출공식】

교육과정 개선 실적 (B) = 변경 교과목 수 + 폐지 교과목 수 + 신설 교과목 수 + 학생제안교과목 수

※ 기준값 (A) : 전년도 실적의 5% 상승값

○ 분석결과

- 교과과정개선 실적은 총 180건으로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여 학문적·사회적·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음
- 학생제안과목이 매 학기 개설되고 있으며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음
- 교과과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매 학기 정기적으로 교과과정의 개선, 학생제안과목 개설 기타 교과과정 운영에 대하여 논의, 결정하고 있음

○ 개선방향

- 교양 교과과정의 편성과 개선은 다양성과 일관성을 목표로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함
- 교양교직부, 학부(과)에 따라 교과과정의 변경주기를 달리하여 학문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교과과정 개선의 건수보다는 개선방향 등 내용의 일관성을 중점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 연구

2.1.2 산업체 요구에 기반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대학은 산업체가 요구하는 학생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평가준거	평가지표	기준 년도	참여학생 수(명)	재학생수 (명)	최소기본 요건(A)	현재수준 (B)	상대점수 (C)
산업체 요구에 기반한 교육과정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참여 학생 비율 (%)	2010	163	5,337	0.5%	3.05%	100

【산출공식】

$$\text{산업체연계 교육과정 참여 학생 비율(\%)} (B) = (\text{산업체연계 교육과정 참여 학생 수} \\ / \text{학부 정원 내외 재학생 수}) \times 100$$

○ 분석결과

- 개설된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의 현재 재학생 대비 참여자 비율은 3.05%로 대기평 최소기본요건 0.5%를 충족하고 있으나, 2009년 이후 참여 학부(기업체)와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

○ 개선방향

- 기존 교육과정의 지속 및 확장을 위한 산학협력단의 활동 강화가 시급함
- 학생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교과과정과 교수방법 등의 개선이 필요함
-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법의 산학 협력을 통한 학부(과) 학생들의 취업과 연계된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함

<참고 표 2.1.2.1>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현황

학부(과)	산업체	학생 수		
		남	여	계
경영학부	KT(수도권서부권역)	4	2	6
행정학부	경기도(시, 시청, 경찰서)	17	10	27
정보통신공학부	KT(수도권서부권역)	18	24	42
체육학과	인천광역시 체육회	9	16	25
뷰티디자인학부	(사)한국심성교육개발원	1	62	63
합 계		49	114	163

2.1.3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

대학은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를 통하여 학생의 선택권과 수업 운영의 융통성을 높이고 있다.

평가준거	평가지표	기준 년도	파견인원		유치인원		합계 (명)	재학생 수(명)	최소기 본요건 (A)	현재 수준 (B)	상대 점수 (C)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	재학생 대비 학점교류 학생 비율(%)	2010	88	11	8	15	122	5,337	0.5%	2.29%	100
			99		23						

【산출공식】

$$\text{학점교류학생 비율(\%)} = \frac{\text{파견인원} + \text{유치인원(명)}}{\text{학부 정원내외 재학생 수 (명)}} \times 100$$

○ 분석결과

- 국내·외 학점교류 학생 수는 대기평 기준치에 부족하나 ‘재학생 대비 비율’로 보면 충족으로 나타나며, 중국 및 일본어 관련학부(과)의 교환학생과 해외캠퍼스(단기어학연수)의 기여도가 큼
- 외국대학과의 학점교류는 파견인원 비중이 91.7%(88명 : 8명)로 불균형을 보임
- 외국인 학생 수는 122명으로 대기평 기준치(5천~1만미만 규모 대학 평균 158.09명)와 현격하게 차이남
- 외국대학과의 교류대상국과 인원은 최근 3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경인지역대학 학점교류 협약에 따른 국내 대학과의 학점교류 실적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지만 비교적 양호함

○ 개선방향

-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기숙사 증축이 우선되어야 함
- 해외파견 프로그램의 경우 단기간의 언어연수(해외캠퍼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위탁교육, 교환학생 등 장기 프로그램의 장려와 홍보가 필요함
- 장기적으로 국내 혹은 해외의 우수 교육기관과의 2+2 혹은 3+1 등 공동학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내대학 학점교류는 경인지역의 대학 뿐 아니라 서울지역의 대학과 교류협약을 추진하여 양질의 교육을 선택하고,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표 2.1.3.1> 국내대학과의 학점교류 현황

연도	파견인원(명)	유치인원(명)	합계(명)	교류대학 수
2010	11	15	26	9개교
2009	20	21	41	9개교

<참고표 2.1.3.2> 국외대학과의 학점교류 현황

연도	파견 인원(명)					유치인원(명)	계	교류대학 수
	단기연수	위탁교육	교환학생	해외캠퍼스	소 계	교환학생		
2010	14	16	24	34	88	8	96	6개국 14개교
2009	15	5	8	23	51	11	62	6개국 12개교
2008	18	16	7	0	41	7	48	3개국 10개교



평가부문 2.2 교수·학습

대학은 적정 수준의 강좌별 학생 수 유지, 충실한 강의계획서 작성을 통해 교수·학습 효과를 높이고 있다. 또한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전문 조직을 운영하고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개발·적용하여 교수·학습의 성과를 제고하고 있다.

2.2.1 수업 규모 및 교수·학습 개선 노력

평가준거	평가내용	기준년도 (공시자료)	강좌수	최소 기본요건 기준값(A)	현재 수준(B)	상대 점수(C)	비고
강좌당 학생수	20명 미만 강좌 개설 비율(%)	2011년도	840개	25%	34.1%	100	
	100명 이상 강좌 개설 비율(%)	2011년도	0개	2.5%	0%	100	



【산출공식】

$$20\text{명 미만 강좌 비율}(\%) (B) = \frac{20\text{명미만개설강좌(수)}}{\text{총개설강좌(수)}} \times 100$$

$$100\text{명 미만 강좌 비율}(\%) (B) = \frac{100\text{명미만개설강좌(수)}}{\text{총개설강좌(수)}} \times 100$$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한 수준

○ 분석결과

- 우리 대학은 강좌당 학생 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교수·학습 효과를 높이고 있음
- 20명 미만의 강좌 개설 비율의 대기평 기준값이 25%인데 비하여, 우리 대학은 34.1%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 100명 이상의 강좌 개설 비율에 있어서도 0%로 최적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우리 대학은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전문 조직인 '교수학습지원센터'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수·학습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음

주요내용	실적		
	2011년도	2010년도	2009년도
사이버강의	33	43	52
교수법세미나	4	4	1
매체제작	수시제작	수시제작	수시제작

※ 매체제작의 경우는 교수들의 요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응하고 있는 상태로 특별한 실적 관리를 하고 있지 않으나 수시로 매체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음

평가부문 2.3 학사관리

대학은 성적관리, 수업평가 등 엄정하고 적절한 학사관리를 통하여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2.3.1 성적관리

평가준거	평가내용	기준년도 (공시자료)	학생수	목표치 (A)(사립)	본교비율 (B)	상대점수 (C)	비고
성적관리	전공과목 A학점 비율	2010년도	14,285명	42.02%	46.38%	90.60	정보공시
성적관리	교양과목 A학점 비율	2010년도	13,861명	35.94%	41.13%	87.38	정보공시

【산출공식】

$$\text{전공 A학점 비율}(\%)(B) = \frac{(\text{전공과목 } A0, A + \text{취득학생수(명)})}{\text{전공과목성적인정학생수(명)}} \times 100$$

$$\text{교양 A학점 비율}(\%)(B) = \frac{(\text{교양과목 } A0, A + \text{취득학생수(명)})}{\text{교양과목성적인정학생수(명)}} \times 100$$

평가준거	평가내용	기준년도	수업수	정정 건수	목표치 (A)	본교비율 (B)	상대점수 (C)	비고
성적관리	성적정정 건수비율	2010년도	2,402회	132건	5.00%	5.50%	90.91	

$$\text{성적정정건수비율}(B) = \frac{\text{정정횟수(건)}}{\text{전체수업횟수(회)}} \times 100$$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한 수준

○ 분석결과

- 학사관리에 대한 제반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그 내용은 합리적임
- 성적 관리는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A학점 성적 비율은 전공과목이 46.38%, 교양과목이 41.13%로 전국대학 평균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이는 전국적인 학점 인플레이션 경향으로 볼 수 있으며, 최근 혹독한 취업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학생들의 치열한 학점 관리의 노력으로도 인정 가능
- 성적제출 이후 성적정정 비율은 5.50%로 목표치(5%)를 약간 상회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성적 관리 및 학사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개선방향

- 현재 우리 대학의 A이상 학점에 대한 상대평가 점수 비율이 20%인데, 이를 15% 낮추었을 때 전국대학 평균에 접근할 수 있음
- 4학년의 경우는 절대평가를 적용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안이 필요
- 상대평가 점수 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전 학년 대상의 상대평가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3.2 수업평가

평가준거	평가내용	기준년도 (공시자료)	4.01이상 수업평가 교원수	목표치(A)	현재 수준(B)	상대 점수(C)	비고
수업평가	전임교원 수업평가	2010년도	255명	80%	81.73%	100	

$$4.01\text{이상 수업평가 교원수 비율}(\%)(B) = \frac{4.01\text{이상수업평가전임교원수}}{\text{총교원수}} \times 100$$

평가준거	평가내용	기준년도 (공시자료)	3.50이하 강의평가 교원수	목표치(A)	현재 수준(B)	상대 점수(C)	비고
수업평가	전임교원 수업평가	2010년도	5명	10%	1.60%	100	

$$3.50\text{이하 수업평가 교원수 비율}(\%)(B) = \frac{3.50\text{이하수업평가전임교원수}}{\text{총교원수}} \times 100$$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한 수준

○ 분석결과

- 우리 대학은 타당한 평가문항과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수업평가를 실시하며, 학생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수업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음
- 2010년도 81.73%에 해당되는 대다수의 전임교원들이 4.01이상의 높은 강의 만족도의 평가를 받고 있고, 3.50이하의 수업평가를 받고 있는 전임교원의 비율은 1.60%에 불과함
- 수업평가 결과에 따라서는 재임용에 결정적인 영향(ex. 4.00 미만의 경우 임용하지 않음)을 미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강의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매년 수업평가 우수교원(전체교원의 2% 정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

○ 개선방향

- 수업평가 우수교원에 대한 포상(현재 2%) 비율을 5%정도로 높여서 전체 교수의 우수강의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 현재 수업평가 결과는 재임용에 결정적인 영향(비정년)을 미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강의 평가 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수업평가 결과 공개 등)

2.3.3 학생상담 및 관리

평가준거	평가내용	기준년도	총 상담건수	목표치 (A)	현재 수준(B)	상대 점수(C)	비고
학생상담 및 관리	교수 1인당 상담실적	2010년도	3,566건	20건	2201건	100	

【산출공식】

$$\text{교원1인당상담실적(B)} = \frac{\text{총상담건수}}{\text{전임교수수}}$$

○ 분석결과

- 우리 대학은 개별상담을 통하여, 성적우수자에 대해서는 동기유발을, 그리고 학사경고자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음
- 2010년도 공시지표 전임교수 1인당 학생수가 37.4명을 고려했을 때, 53.11%에 해당하는 과반수 이상의 학생이 전임교원과 1회 이상의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교수 1인당 상담실적은 매년 증가 추세
- 1:1 상담을 통한 성적 및 진로 상담 이외에도, 1학년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한 전공 지도교수 주체의 제자반 운영(6~8명의 소규모 그룹)은 신입생의 인성 상담과 학교 적응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개선방향

- 우리 대학의 독특한 제도인 제자반을 인성지도뿐만 아니라 조기 취업지도에도 활용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양적인 상담보다는 보다 질적인 상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임

평가부문 2.4 교육성과

대학은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유능한 인재를 양성·배출 하고 있으며, 그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4.1 졸업생의 취업률

평가준거	평가내용	기준년도 (공시자료)	최소 기본요건 기준값(A)	현재 수준(B)	상대 점수(C)	비고
졸업생의 취업률	졸업생 취업율	2011년도	45%	47.2%	100	정보공시

【산출공식】

취업률(%) (B) = $\frac{\text{건보가입취업자} / \text{졸업자} - (\text{진학자} + \text{입대자} + \text{취업불가능자} + \text{외국인유학생} + \text{제외인정자})}{(\text{신학부} + \text{기초수급대자})} \times 100$

○ 분석결과

- 적정 수준 이상의 졸업생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음
- 대기평 최소기본요건 기준값인 45%를 상회하는 수준임
- 재학생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취업지원책을 실시하여 취업률 향상에 노력하고 있음

<참고표 2.4.1.1> 2011년 사업내역

순번	세부사업	집행(실적)	
		명	금액
1	○ 취업캠프 * 하계 “취업능력강화캠프” (2011년 6월 30일~ 7월 1일)	40명	12,000,000원
2	○ 취업클리닉 * 온라인클리닉 (2011.10.13~ 진행중) * 1:1클리닉, 모의면접(2011.10.26~29)	200명 80명	10,000,000원
3	○ 카네기리더십 * 동계 “성공 리더십 취업캠프”	33명	8,000,000원

	(2011년 6월 27일~29일)		
4	○ 이미지 체인지스쿨 (2011년 5월 11일, 2011년 10월 12일)	80명	6,800,000원
5	○ 취업스터디(2011년 4월 ~ 9월)	40명	7,000,000원
6	○ 청년 직장체험프로그램 (2011년 3월 ~ 2012년 2월)	70명	66,900,000원

○ 개선방향

- 매년 취업률이 최소기본요건 기준값인 45%를 상회하는 수준이나 보다 적극적인 취업률 향상 대책이 필요함
- 재학생뿐만 아니라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책도 마련해야 함

2. 교육영역 종합토론 및 논의

대학교육의 목표는 충실한 교육을 통하여 사회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특히 '교육중심대학'을 표방하는 우리 대학은 합리적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효율적인 교수·학습, 1:1 중심의 친밀한 학생관리 그리고 엄격한 학사관리 등 교육영역의 여러 부분의 지표 향상에 가장 큰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대학은 교과과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교양 및 전공교육과정을 합리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학문적·사회적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또한 산업체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과정과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가 활성화되어 학생의 선택권이 확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교양 및 전공교육과정의 편성·운영
 - 교양교과과정의 개선 : 필수과목 내용 정비, 선택과목의 다양화
 - 학부(과)별 교과과정 개선 주기의 유연성
 - 교과과정위원회에 전문성과 일관성 부여
 - 진로지도와 지도교수 상담을 통한 복수, 부전공제도의 활성화
- 산업체 요구에 기반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 73 -

- 산학협력단 체제 정비 및 활동 강화
- 기업맞춤형 학과 이외에도 기업 맞춤형 교과과정,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키스톤 프로그램 등 다양한 루트 개발
-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
 - 외국인 학생을 다양한 학부(과)에 유치하도록 자매대학에 적극적 홍보
 - 학부(과) 별 특성에 맞는 학점연계 가능한 해외교류기관 개발 및 지원 확대
 - 국·내외 우수한 교육기관과의 자매결연으로 학점교류 증가 유도
- 적정 수준의 강좌별 학생 수 유지 및 엄정한 성적관리와 수업평가
 - 소규모 강좌 중심의 교육서비스를 통한 높은 수업 만족도
 - 철저한 학사관리와 엄정한 성적관리
- 친밀한 학생상담을 통한 학업성취도 및 교육성과 향상
 - 1:1 개별상담을 통한 질적 학생관리
 - 제자반 등을 통한 인성 및 진로 교육
 - 취업률 등 교육성과 향상을 위한 예산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 74 -

3. 대학구성원

3. 교수/직원영역 평가 결과

평가 영역	평가 부문	평가준거	평가내용	기준 년도	최소 기본요건 기준값(A)	현재 수준 (B)	상대 점수(C)	비고
3.대학 구성원	3.1교수	3.1.1 전임교원 ¹⁾ 확보율	전임교원 확보율	2011	61%	59.6%	97.7	재학생 기준
		3.1.2 비전임교원의 활용 ²⁾	비전임교원의 강의 담당비율(%)	2011	50%	47.7%	100	연평균
		3.1.3 시간강사의 처우 및 복지	시간강사 강의료(원)	2011	40,000원	31,600원	79	1급, 2급
		3.1.4 교수의 연구실적 및 연구비	전임교원 1인당 국내 논문 실적(건수)	2010	0.50편	0.50편	100	국내
			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 실적(건수)		0.35편	0.40편	100	등재지
			전임교원 1인당 국제 논문 실적(건수)		0.10편 ³⁾	0.10편	100	국제

3.대학 구성원	3.1교수	3.1.4 교수의 연구실적 및 연구비	전임교원 1인당 SCI급 논문 실적(건수)	2010	0.05편 ³⁾	0.02편	40	SCI급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 (건수)		0.07편	0.20편	100	
			전임교원 1인당 교내 연구비 (천원)		500천원 ³⁾	1,749천원	100	교수 비율
			전임교원 1인당 교외 연구비 (천원)		2,000천원 ³⁾	1,272천원	63.6	교수 비율
	3.2직원	3.2.1 직원 규모 ²⁾	직원1인당 학생수	2011	60명	75명	76.1	
		3.2.2 직원의 전문성 개발 및 복지	교육 지원현황	2010	1,055,767	1,242,481	100	전년도 기준
	3.3학생	3.3.1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¹⁾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2011	95.0%	99.92%	100	
		3.3.2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¹⁾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2011	70.0%	107.7%	100	
		3.3.3 학생상담체제 구축 및 운영	학생 1인당 상담실적(건)	2010	0.71	0.67	94.3	
	영역별 평균						90.01	

1) 필수평가준거

2) 상대점수 $C = B/A$ 의 백분율 점수,

단, 3.1.2, 3.2.1의 경우는 $C = 100 + [(A-B)/A]$ 의 백분율 점수] 임

3) 자연계열 교수비율 20% 미만 대학 기준 값

대학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충분한 교수를 확보하고 교수의 전문성 함양과 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직원의 확보와 동시에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며, 능력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을 선발, 충원, 유지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생활 및 진로 상담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평가부문

3.1 교수

3.2 직원

3.3 학생

평가부문 3.1 교수

대학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우수한 전임교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수업적평가제도 운영,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교수는 대학의 목표 달성에 충분한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학연산관협력력을 통하여 연구비를 확보하고, 대학에서 생산된 기술과 특허의 환원을 통해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3.1.1 전임교원 확보율 : 전임교원 확보율(필수평가준거)

평가준거	평가내용	기준 년도	교원법정정원		전임 교원 현황	최소 기본요건 기준값 (A)	현재 수준 (B)		상대점수 (C)		비고
			편제	재학생			편제	재학생	편제	재학생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확보율	2011	263	272	162	61%	61.6%	59.6%	100	97.70	재학생

【산출공식】

$$\text{전임교원 확보율}(\%) (B) = \frac{\text{전임교원 수(명)}}{\text{교원법정 정원(명)}} \times 100$$

※편제정원 기준 및 재학생 기준 중, 전임교원 확보율이 낮은 수치 사용

○ 분석결과

- 우리 대학의 교원 법정 전임교원수는 편제정원 기준 263명, 재학생 기준 272명으로 조사되었음
- 2011년도 기준 재직 전임교원수는 162명으로 편제기준 61.6%로 최소 요구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나 재학생 기준인 59.6%로 약간 부족함
- 2010년도 재학생 기준 61.7%를 유지하였으나 재학생수의 증가(학부 207명, 대학원 50명)로 비율이 감소함
- 대학기관평가(이하 대기평) 인증자료에서 제시한 전체대학(201개) 평균 63.83%에 미치지 못함

○ 개선방향

- 전임교원 확보율은 대기평기준의 필수평가준거이며, 교과부의 구조조정지표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
- 충분한 전임교원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매학기 별로 전임교원 확보율을 예측하여 학부(과)별 교원 수요조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유동 가능한 전임교원수와 재학생 수에 따라 전임교원 확보율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적정 전임교원 수를 유지해야 함
- 교과부지표의 기준치가 가변적임을 생각할 때, 상시 전체대학평균치에 해당하는 63.83% 이상을 유지해야 함
- 전공별 교수확보율, 경쟁력, 정보공시지표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교수충원 계획을 수립해야 함

3.1.2 비전임교원의 활용 : 총 개설 강의 중 비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

평가준거	평가내용	기준 년도	총 개설 강의 학점	비전임 교원 강의담 당학점	최소 기본요건 기준값 (A)	현재 수준 (B)	상대점수 (C)	비고
비전임교원의 활용	비전임교원의 강의담당비율 (%)	2011. 1학기	2,365	1,142.4	50%	47.7%	100	연 평균
		2011. 2학기	2,288	1,077.4				

【산출공식】

$$\text{비전임교원의 강의담당비율(\%)} (B) = \frac{\text{비전임교원 강의담당 학점}}{\text{총 개설 강의 학점}} \times 100$$

※ 비전임교원에서는 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 기타 비전임교원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한 수준

○ 분석결과

- 비전임교원(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 기타 비전임교원 등)의 강의담당 비율은 47.7%로 대기평 기준치를 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 겸임교원 4.3%, 시간강사 40.9%, 기타 비전임교원 2.6%로 시간강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관찰됨
- 최근 2년간, 비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2009년 53.15%, 2010년 51.35%)에 비해 개선된 실적임. 이는 전임교원 확보율 증가와 함께 연동되는 항목으로 해석됨(참고 2009년 전임교수 확보율 53.6%, 비전임강의 담당비율 53.15%)

○ 개선방향

- 전임교원 확보율과 연동되는 지표이므로 전임교원의 초과강의 시간수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 대기평 인증자료의 전체대학 평균치인 46.52%에 근접한 상태이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유지정책이 필요함. 강의품질 개선측면에서 전임교수 강의담당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함
- 매학기별 시물레이션으로 책임시수, 초과강의 시수의 최적 수준을 결정할 수 있음. 교육중점, 연구중점교수로 중심역할이 재편되는 경우 효율적으로 운용 가능함

3.1.3 시간강사의 처우 및 복지 : 시간강사 강의료

평가준거	평가내용	기준 년도	구분	지급된 총금액 (만원)	강의 시간수	등급별 시간 강사료(원)	최소 기본요건 기준값(A)	현재 수준 (B)	상대점수 (C)
시간강사 처우 및 복지	시간 강사 강의료(원)	2011	1등급	1,776	444	40,000	40,000원	31,600원	79
			2등급	19,046.4	6,144	31,000			

【산출공식】

$$\text{시간 강사료(원) (B)} = \frac{(\text{등급별 시간당 지급기준 단가} \times \text{총 강의시간 수}) \text{의 총합}}{\text{총 강의시간 수의 총합}}$$

○ 분석결과

- 시간당 강의료는 31,600원으로 조사되었으며, 1등급강사의 비중은 전체시간 강의수 대비 6.3%를 차지하고 있고 시간당 40,000원임. 2등급인 경우 단가 31,000원이며 전체강의 대비 93.7%의 비중임
- 대기평기준치인 40,000원은 우리 대학의 1등급 강사료에 해당하는 수준임
- 4년제 대학 전체평균단가는 36,197원으로 우리 대학의 평균단가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개선방향

- 현재 전임교수 초과시수와 시급을 약간 상향하는 경우, 시간강의료와 초과강의료 차액에 따른 잉여 자금으로 강사료 상향조정 가능과 비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개선효과 기대
- 재원마련을 위한 발전기금 유치 특별팀 가동과 활동 등 다각도의 재정확충 마스터플랜 수립 및 추진 필요

3.1.4 교수의 연구실적 및 연구비

3.1.4.1 전임교원 1인당 국내 논문 실적

평가준거	평가내용	기준 년도	국내 연구실적(건수)			전임교 원수 (명)	최소 기본요건 기준값 (A)	현재 수준(B)	상대 점수(C)	비고
			소계	연구재단 등재지 (후보포함)	기타 국내 발간 일반학술지					
교수의 연구실 적 및 연구비	전임교원 1인당 국내 논문 실적(건수)	2010	77.2	70.2	7	162	0.5편	0.5편	100	국내

【산출공식】

$$\text{국내 기준(건수) (B)} = \frac{\text{국내연구실적(건수)}}{\text{전임교원수(명)}}$$

3.1.4.2 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 실적

평가준거	평가내용	기준 년도	국내 연구재단 등재지(후보포함)(건수)	전임교 원수 (명)	최소 기본요건 기준값 (A)	현재 수준(B)	상대 점수(C)	비고
교수의 연구 실적 및 연구비	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 실적(건수)	2010	70.2	162	0.35건	0.40건	100	등재지

【산출공식】

$$\text{등재(후보)지 기준(건수) (B)} = \frac{\text{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게재(건수)}}{\text{전임교원수(명)}}$$

○ 분석결과

- 전임교원 1인당 국내등재(후보)지 논문에 게재한 연구실적은 0.4편으로 대기평기준 0.35편을 상회하고 있음
- 2009년 0.3편 대비 상승추세에 있으며 대기평 전체대학평균 0.47에 근접한 수준임
- 지속적인 연구 장려금 제도개선, 연구년 연구결과 등재지 인정제도 등에 따른 실적증대로 분석됨
- 전체 전임교원중 비정년트랙 교원(32명)과 원어민 교원수(32명)가 차지하는 비율(40%)을 고려해 볼 때 대체로 양호함. 실제적으로 연구논문을 게재할 수 있는 정년트랙(98명) 비정년트랙(32명)만의 실적은 0.57편 수준임
- 직급별 논문실적의 편차해소 방법 제시 필요. 등재지 1인당 게재실적은 교수 0.3편(58명, 17.99편), 부교수 0.7편(18명, 12.64편), 조교수 0.8편(16명, 13.18편), 전임강사 2.0편(6명, 12.13편), 비정년트랙 0.2편(64명, 14.17편)으로, 직급별 실적분석에 따른 해법을 모색해야 함

○ 개선방향

- 교내연구비 지원시, 등재지 게재 의무화로 전환. 교내논문지가 연구재단 등재지로 등록된 경우 인정. 교내연구소 개편으로 논문지가 등재된 연구소만 논문지 발급

- 개인별 연구증진을 독려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마련. 인센티브의 일정 부분 연구실적 평가제 도입에 따른 차등지급 제도화
- 연구의 심장부인 대학원의 역할 제고. 우리 대학의 경우 신학, 사회과학 분야에 대학원이 집중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구인력 발굴과 국내 논문지 실적 향상 가능
- 석·박사 과정의 경우 졸업요건에 등재지 이상에 논문게재를 졸업요건으로 의무화(단 지도교수 포함, 석사의 경우 1~2편, 박사의 경우 3편 이상)
- 직급별(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논문 게재실적의 편차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수반되어야 함. 정년보장 교수의 비율이 59%(정년트랙 전임교원비율 58명/98명)임을 고려해 볼 때, 등재논문 게재 의무화 제도 도입 필요
- 비정년트랙 교원 1인당 등재지 논문 게재실적 0.2편은 정교수 0.3편보다 낮으므로 보완책 필요
- 연구중점교수제도 운영에 따른 국내등재지 논문 실적 증대. 연구비지원, 책임시수 경감, 행정완화 등의 제도를 뒷받침하는 연구중점교수제도 운영으로 단독기준 연간 3편 이상을 의무화하는 경우, 12-15명의 연구중점교수는 36-45편(0.25의 증가치 발생) 기대, 현재수준으로 계산한 경우 0.65수준으로 상승가능
- 연구에 매진해야할 교수인력의 행정부담 완화. 교내행정 프로젝트는 행정의 전문성을 갖춘 처장급 과 직원(과장, 계장)으로 구성된 TF에서 전담하도록 행정제도 정비

3.1.4.3 전임교원 1인당 국제 논문 실적

평가준거	평가내용	기준 년도	국제 연구실적(건수)			전임교 원수 (명)	최소 기본요건 기준값 (A)	현재 수준(B)	상대 점수(C)	비고
			소계	SCI급/ SCOPUS 학술지	기타 국제 발간 일반학술지					
교수의 연구 실적 및 연구비	전임교원 1인당 국제 논문 실적(건수)	2010	10.3	3.3	7	162	0.10편	0.10편	100	국제

【산출공식】

$$\text{국제 기준(건수) (B)} = \frac{\text{국제연구실적(건수)}}{\text{전임교원수(명)}}$$

3.1.4.4 전임교원 1인당 SCI급 논문 실적

평가준거	평가내용	기준 년도	SCI급/SCOPUS학술지 (건수)	전임교 원수(명)	최소 기본요건 기준값 (A)	현재 수준(B)	상대 점수(C)	비고
교수의 연구 실적 및 연구비	전임교원 1인당 SCI급 논문 실 적(건수)	2010	3.3	162	0.05편	0.02건	40	SCI급

【산출공식】

$$\text{SCI급 기준(건수) (B)} = \frac{\text{SCI급} + \text{SCOPUS 학술지 게재(건수)}}{\text{전임교원수(명)}}$$

○ 분석결과

- 국제논문은 총 10.3편으로 전임교수 1인당 0.10편을 게재하였으며 대기평기준 0.10편을 충족하고 있음
- SCI급/SCOPUS는 1인당 0.02편으로 대기평기준 0.05편(자연계열 교수비율이 20%미만인 대학의 경우)에 다소 부족함
- 다수의 SCI급 논문을 기대할 수 있는 전공의 부재(예-화공학과, 화학과, 환경공학과, 분자생물학과, 약학과, 간호학과 등)
- 연구의 산실인 대학원 편제가 상대적으로 SCI급 논문양산에 불리한 신학, 인문사회학에 편중되어 있는 구조임
- SCI급 논문을 다소 기대할 수 있는 공과대학에 대학원과 연구기반이 취약함(교수비율 16.05%, 26명)
- 직급별 SCI급 논문게재 실적은 부교수 1편, 조교수 1.37편, 전임강사 0.89편, 교수와 비정년트랙은 전무함

○ 개선방향

- 교내프로젝트 발주와 연구결과물, SCI급 논문지 게재의무화에 따른 실적 증대
- SCI급 논문지 게재실적을 토대로 연구조교, 대학원생 등록금지원, 연구 공간 등 지원방법 모색
- ‘연구중점교수제’ 도입. 전임교수 중, 연구중점교수를 선정하여 일정연구비를 지원하고 책임시수 경감, 행정부담 완화, 한시적 보직유보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실적 의무화
- 대기평 사립대 SCI급 논문평균치인 0.1편을 만족시키기 위해 단독저자 기준 16편의 논문이 필요함. 따라서 단독 년 1~2편을 게재하는 경우 8~16명의 연구중점교수 인력 필요

3.1.4.5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

평가준거	평가내용	기준 년도	저역서수 (건수)	전임교 원수 (명)	최소 기본요건 기준값 (A)	현재 수준(B)	상대 점수(C)	비고
교수의 연구 실적 및 연구비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건수)	2010	27.9	162	0.07편	0.20편	100	

【산출공식】

$$\text{저역서 실적(건수) (B)} = \frac{\text{저역서수(건수)}}{\text{전임교원수(명)}}$$

○ 분석결과

- 전임교수가 저술한 저역서는 총 27.9편으로 1인당 0.2편을 출간하였음
- 1인당 0.2편의 실적은 대기평 기준 0.07편을 286% 상회하는 수준임
- 전년도 0.1편 대비 100% 증가치를 보이고 있음
- 비교적 저술활동이 활발한 신학, 인문학, 사회학 분야의 전공구성과 교수비중(83.95%, 136명/162명)이 높기 때문에 판단됨

○ 개선방향

- 우수도서, 베스트셀러, 명품도서 발굴을 위한 저술활동 지원방법 모색

3.1.4.6 전임교원 1인당 교내 연구비

평가준거	평가내용	기준 년도	교내연구비 + 교내대응자금 (천원)			전임 교원 수(명)	최소 기본요건 기준값 (A)	현재 수준(B)	상대 점수(C)	비고
			소계	교내 연구비	교내 대응자금					
교수의 연구 실적 및 연구비	전임교원 1인당 교내 연구비 (천원)	2010	283,279	220,000	63,279	162	500 (천원)	1,749 (천원)	100	

【산출공식】

$$\text{연구비(교내)(천원) (B)} = \frac{(\text{교내연구비} + \text{교내대응자금})(\text{천원})}{\text{전임교원수(명)}}$$

○ 분석결과

- 전임교수 1인당 교내연구비 지원실적은 1,749천원으로 조사됨
- 대기평 기준인 자연계열 교수 20%미만 대학의 기준치 500천원을 상회하는 수준임. 대기평 전국평
균치 3,164천원에는 미치지 못함

○ 개선방향

- 교내연구비지원 제도의 다각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현재 교내연구소에 게재하거나 외부등재지
이상에 게재하는 조건으로 일정액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프로젝트별, 게재수준별, 계열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제도 도입
- 연구기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한시적인 재정지원 구조로부터 탈피해야 함
- 대학행정 제도개선, 평가, 발전계획, 특성화 등과 관련된 교내프로젝트 교비연구지원 시스템 정착
화. 단순한 행정인건비 처리방법에서 탈피하여 연구프로젝트로 발주하는 경우 질 개선 및 교내연
구비 실적 증가기대

3.1.4.7 전임교원 1인당 교외 연구비

평가준거	평가 내용	기준 년도	교외연구비 + 교내대응자금(천원)					전임 교원 수(명)	최소 기본요건 기준값 (A)	현재 수준 (B)	상대 점수 (C)	비고	
			소계	교외 연구비									교외 대응 자금
				중앙정부	지자체	민 간	외 국						
				195,987	10,000	0	0						
교수의 연구실적 및 연구비	전임교원 1인당 교외 연구비 (천원)	2010	205,987	205,987				0	162	2,000 (천원)	1,272 (천원)	63.58	

【산출공식】

$$\text{연구비(교외)(천원) (B)} = \frac{(\text{교외연구비} + \text{교외대응자금})(\text{천원})}{\text{전임교원수(명)}}$$

○ 분석결과

-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 수주액은 1,272천원으로 조사됨. 대기평 기준치인 2,000천원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전년도(2009) 2,945천원 대비 감소상태를 보임
- 연구과제 수주의 경쟁력이 전공분야 대학원 유무와 상관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대학은 불리한 구조임
- 용역과제인 경우 외부연구비에서 제외됨

○ 개선방향

- 연구중점교수 발굴, 일정액수 이상 수주한 연구책임자의 책임시수 및 보직 경감 등으로 외부과제 수주의 촉진
- 외부과제수주자 연구 간접비 중 지급하는 인센티브 50%수준으로 상향조정으로 과제수주 촉진
- 외부과제 수주액별 승진논문 대체 제도도입
- 외부과제수주 우수자에게 연구실, 연구조교지원, 특별연구비,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제도 발굴 및 활성화
- 외부과제수주 실적 우수자 특별채용제도 도입. 교원 임용시 외부과제우수자 가산점 적용
- 대학원(학부) 전공별 외부과제 수주실적 반영을 통한 대학원 학생수 조정 및 구조조정

평가부문 3.2 직원

대학은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직원을 적절히 확보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며, 직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3.2.1 직원 규모 : 직원 1인당 재학생 수

평가 준거	평가 내용	기준 년도	직원 현황(명)								재학생수(명)			최소기 본요건 기준값 (A)	현재 수준 (B)	상대 점수 (C)	비고
			총 계	특정직		일 반 직	기 술 직	별 정 직	기 능 직	계 약 직	계	학부	대학원				
직원 규모	직원 1인당 학생수	2011	75	0	0	43	12	0	14	6	5,575	5,512	63	60명	74명	76.12	9월 자료

【산출공식】

$$\text{직원1인당 재학생수(명) (B)} = \frac{(\text{학부 정원 내외} + \text{대학원})\text{재학생수(명)}}{\text{직원수(명)}}$$

※대학 회계를 통해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총 인원(대학 및 대학원 소속 직원)

※일반 대학원 재학생수를 사용함

※수치가 낮을수록 바람직한 수준

3.2.2 직원의 전문성 개발 및 복지 : 연수 지원 현황

평가준거	평가내용	기준 년도	당해연도 교육훈련 비용(원)	직원수(명)	직원1인당 교육훈련비용 (A)	증가량(B)	비고
직원의 전문성 개발 및 복지	연수 지원 현황	2010	94,428,549	76	1,242,481	18%	최근 2년간
		2009	84,461,345	80	1,055,767		

【산출공식】

$$\text{직원 1인당 교육훈련비용(원) (A)} = \frac{\text{당해연도 교육훈련 비용(원)}}{\text{직원수(명)}}$$

$$\text{증가량(\%)} (B) = \frac{\text{비교년도 지원액(원)} - \text{기준년도 지원액(원)}}{\text{기준년도 지원액(원)}} \times 100$$

○ 분석결과

- 우리 대학에 근무하는 직원은 2011년 기준 총 75명이고 직원 1인당 학생수는 74명으로 조사됨. 대기평균기준치 60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직원1인당 교육연수지원액은 1,242,481원으로 조사됨. 2009년도 대비 18%의 증가치를 보임

○ 개선방향

- 대기평균기준을 위한 추가 지표 방안 마련 모색. 직원 충원에 대한 검토 필요
- 단순한 양적인 충원보다는 직원의 전문성개발을 위한 지원 확대. 전문교육 프로그램 참여 독려
- 대학행정의 선진화 정착을 위한 창의적 기획능력 확보
- 직원중심의 행정제도개선, 발전계획, 인사제도 등에 관련된 프로젝트 발굴 및 TF 가동
- 행정, 기획 능력 검증 시스템 발굴

평가부문 3.3 학생

대학은 대학의 교육목적 실현에 적합한 학생들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발, 충원, 유지하고 있으며, 상담 체제의 구축 및 운영을 통해서 재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 학업 및 진로지도를 지원하고 있다.

3.3.1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필수평가준거]

대학은 대학평가원 지정 기준 이상의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을 유지하고 있다.

평가준거	정량지표	기준 년도	정원내 모집인원(명)	정원내 입학자수(명)	최소기본 요건 (A)	현재수준 (B)	상대점수 (C)
3.3.1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2011	1,279	1,278	95.0%	99.92%	100

【산출공식】

$$\text{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B)} = \frac{\text{정원내 입학자 수(명)}}{\text{정원내 모집인원(명)}} \times 100$$

※정원내 모집인원 : 입학정원 + 이월인원

※정원내 입학자수 : 정원내에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에 지원하여 입학한 자

○ 분석결과

-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은 충족 조건(95.0%) 및 4년제 사립 일반대 평균을 모두 넘어 양호함. 단 수시모집 등록율이 상대적으로 낮아(48.29%) 향후 우수학생 유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참고표 3.3.1.1> 모집구분에 따른 신입생 충원율 현황

학년도	수시			정시 가군			정시 다군			추가모집			최종 합계		
	모집 인원	등록 인원	등록률	모집 인원	등록 인원	등록률	모집 인원	등록 인원	등록률	모집 인원	등록 인원	등록률	모집 인원	등록 인원	등록률
2011	907	438	48.29	772	764	98.96	53	52	98.11	20	24	120	1,279	1,278	99.92
2010	890	477	53.60	748	718	95.99	61	58	95.08	34	34	100	1,286	1,287	100.08

○ 개선방향

- 2012년부터 학생 수 급감이 예상되므로 안정적 신입생 확보 및 입시전략이 필요함. 2012학년 수시모집 정책의 변화로 수시 충원율 향상이 기대되나, 우수학생 유치를 위하여 전반적인 입시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대책 마련 필요

3.3.2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필수평가준거]

대학은 대학평가원 지정 기준 이상의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을 유지하고 있다.

평가준거	정량지표	기준 년도	정원내 재학생수(명)	편제정원(명)	최소기본 요건 (A)	현재수준 (B)	상대점수 (C)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2011	4,946	5,120	70.0%	96.60%	100

【산출공식】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B) = 정원내 재학생 수(명)/편제정원(명) × 100

※정원내 재학생 : 해당년도 현재 대학생으로 정원내 인원을 의미함

○ 분석결과

-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은 대기평 충족 조건(70%) 및 전체평균 대비 6.53% 이상으로 양호함

3.3.3 학생상담체제 구축 및 운영

대학은 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 학업 및 진로지도와 관련된 상담 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상담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평가준거	평가지표	기준 년도	상담 체제별 상담건수			재학생 수	기준값 (A)	현재수준 (B)	상대점수 (C)
			지도교수	종합인력 개발센터	총 상담건수				
학생상담체제 구축 및 운영	학생 1인당 상담 실적	2010	2,605	961	3,566	5337	0.71건	0.67건	94.3

【산출공식】

학생 1인당 상담 실적 (B) = 총 상담건수 / 재학생수

※ 대학의 상담기구의 실적 및 전임교수의 개별상담실적을 포함

※ 보건소의 건강상담(보건소이용횟수)은 제외

○ 분석결과

- 학생상담은 종합인력개발센터, 지도교수, 제자반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계성이 미흡함
- 종합인력개발센터는 취업 및 진로지도 상담을 위한 다양한 상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
- 전년 대비 상담을 지표 점수는 낮아졌으나 최근 3년간 학생 1인당 상담 실적이 높아지고 있으며, 직업심리검사 보다 진로, 취업 상담 건수의 비율이 높아져 질적 향상이라고 볼 수 있음
- 대기평의 평가 기준인 “만족도”와 “성과성(계획 대비 80% 이상 목표달성)”에 대한 대비가 미흡함

<참고 표 3.3.3.1> 최근 2년간 학생 1인당 상담실적

학년도	재학생 수(명)	상담 체제별 상담건수		총 상담건수 (건)	학생1인당상담실적 (건)
		지도교수	종합인력개발센터		
2010	5,337	2,605	961	3,566	0.67
2009	5,228	2,499	1,040	3,549	0.69

○ 개선방향

- 대기평 평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담체제별로 보다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증빙자료 축적이 필요함
- 종합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를 보완하고 심도 있는 진로·취업 상담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학부(과)의 노력 필요
- 가능하면 상담자를 분야별로(예능계, 공학계, 어문계 등) 특성화 교육하여 학생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취업 및 진로상담 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기존의 다양한 체계를 아우르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시스템 필요(기존 체계의 연계성 강화, 혹은 '상담센터'와 같은 상위 체계 신설 등이 논의될 수 있음)
- 기존의 프로그램에 '멘토링(mentoring) 프로그램'을 접목시켜 보다 실질적인 상담지도와 함께 소속감, 자긍심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3. 대학구성원 영역 종합토론 및 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우수한 교직원도 아마도 선결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 중의 하나일 것이다. 우리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양호한 편이고, 연구실적 또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교수 직급간 연구실적의 편차가 높은 편이라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양질의 교수확보는 매우 중요함으로 이 부분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필요가 있다.

대학 행정시스템 또한 선진화되고 혁신적이어야 한다. 전문성을 전제로 행정을 선도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수립하는 일은 여러모로 대학구성원에게 고품질교육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기에 충분하다. 우리 대학의 재학생 1인당 직원수는 다소 부족한 편이나, 행정직원의 교육시스템과 전문성은 양호한 편이다. 향후 직원 복지 향상에 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신입생 충원과 재학생 충원은 대학이 존재하기 위한 최소 요건임에도 최근 학령 인구의 감소로 대학존폐를 결정할 필수 지표가 되고 있다. 우리 대학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시정책과 노력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지표를 유지하고 있으며, 학업과 취업지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상담 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우수한 학생 선발과 재학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입시정책에 대한

고민이 시급하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체계화가 필요하다.

○ 전임교원 확보율(필수평가 준거)

- 장·단기적 교원채용 계획 마련. 학부(과)별 경쟁력 분석에 따른 교수 채용 우선권 부여
- 재학생수 변동과 정년퇴임 교원 수에 따른 탄력적 채용제도 운용
- 우수교수 상시채용 제도 도입
- 채용제도 다각화 및 채용규정 상시 정비

○ 비전임교원의 활용

- 전임교원의 초과시수 탄력적 운용
- 학기단위 교강사 배정시 비전임교원 강의비율 모니터링 및 조정
- 겸임교원, 초빙교원, 특별교원 공개 채용도입

○ 연구논문 및 외부연구비 수주실적

- 학부(과) 및 개인평가에 따른 성과급제도 도입
- 경쟁 대학의 실적과 교과부 지표를 반영한 승급, 승진제도 탄력적 운용
- 우수연구교원에 대한 연구지원 인력 및 연구 공간 지원
- 외부연구비 수주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지원 상향으로 수주실적 촉진

- 연구중점교수제도 운영
- 연구의 심장부로서 일반(전문)대학원 역할 제고

○ 직원

- 전문교육 프로그램 참여 지원
- 대학행정의 선진화, 혁신화를 주도하는 창의적 기획능력 확보

○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면밀한 피드백과 전략팀 구성

○ 상담체제의 구축과 운영

- 종합인력개발센터를 중심으로 상담체제의 강화 및 체계화, 연계성 모색
- 기존의 상담체계에 '멘토링(mentoring) 프로그램' 접목

4. 교육시설

평가 영역	평가 부문	평가준거	평가내용	기준 년도	최소 기본요건 기준값 (A)	현재 수준(B)	상대 점수(C)	비고
4.교육 시설	4.1교육 기본 시설	교사 확보율 (필수평가)	교사시설 확보율	2011	100%	96.6%	96.6	
		강의실 확보율	강의실 확보현황	2011	1.2	3.85	100	
		실험·실습실 확보율	실험·실습실확보 현황	2011	2.5	5.24	100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정도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2009 ~2011	276,600원	446,002원	100	
	2.교육 지원 시설	기숙사 확보현황	기숙사 수용율	2011	10%	1.8%	18	
		학생복지시설	학생 복지시설 현황(㎡)	2011	5,288.40	7,799.14	100	
	3.도서관	도서관 운영	재학생1인당 연간자료구입비(천원)	2011	50	81	100	
			재학생 1,000명당 도서관 직원수	2011	1.0	0.8	80	
					영역별평균		86.83	

평가영역 4. 교육시설

대학은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 강의실, 실험·실습실 및 기자재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또한 대학은 학생의 교육과 교수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비롯한 정보지원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다.

■ 평가부문

- 4.1 교육기본시설
- 4.2 교육지원시설
- 4.3 도서관

평가부문

4.1 교육기본시설

대학은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를 확보하며, 강의실, 실험·실습실, 실험·실습 기자재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평가준거

4.1.1 교사 확보율 [★필수평가준거]

대학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대학평가원 지정 기준 이상의 교사를 확보하고 있다.

평가준거	평가내용	기준 년도	기준면적	보유면적			최소 기본요건 기준값 (A)	현재수준 (B)	상대점수 (C)	비고
				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교사 확보율 (필수평가)	교사시설 확보율	2011	68,144	58,505	6,727	570	100%이상	96.6%*	96.60	

【산출공식】

$$\text{교사시설 확보율(\%)} (B) = \frac{\text{기준면적}}{\text{기본시설} + \text{지원시설} + \text{연구시설}} \times 100$$

※ 2011년 4월 정보공시시기, 자료기준연도 자료임

○ 분석결과

- 2011년도 우리 대학의 교사확보율은 기준면적 대비 보유면적이 96.6%로 조사되었음
- 교사확보율은 대기평 최소기본요건 기준값 100% 이상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2010년도 교사확보율은 92.6%로 전년도 대비 4% 증가한 것임
- 대기평에서 제시한 사립대학(170개)평균 128.24%, 5천-1만 미만 대학(67개) 110.58%에 미치지 못함

○ 개선방향

- 교사확보율은 대기평기준의 필수평가준거이며, 교과부의 구조조정지표이고, 대학설립·운영규정의 대학설립 4대 요건 중의 하나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
- 재립관 리모델링, 기숙사 신축 등과 같은 충분한 교사확보를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교사건설계획, 적립금 중 교사건축비 확보 정도, 시설의 공동 활용 등 교사운영의 효율성, 기타 부족한 교사 보완의 충실성 등 질적 평가 점검사항을 보완할 필요성이 요구됨
- 교과부지표의 기준치가 가변적임을 생각할 때, 상시 전체대학평균치에 해당하는 110% 이상을 유지해야 함

4.1.2 강의실 확보율

대학은 강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의실 공간을 확보하고, 강의실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있다.

평가 준거	평가내용	기준 년도	구분	실수	면적 (㎡)	재학 생수	최소기본요건 기준값(A)	현재 수준(B)	상대점수 (C)	비 고
강의실 확보율	강의실 확보현황	2011	일반강의실	95	18,707	4,857	1.2	3.85	100	
			멀티미디어 강의실							
			합계	95	18,707	4,857		3.85		

【산출공식】

$$\text{재학생 1인당 강의실 면적}(m^2) (B) = \frac{\text{강의실 면적}(m^2)}{(\text{학부 정원 내외} + \text{대학원})\text{재학생 수}(명)}$$

(단, 야간 및 계절제 대학원생은 제외)

○ 분석결과

- 2011년도 강의실 확보 현황은 일반강의실 및 멀티미디어 강의실 총 실수면적을 재학생 1인당 강의실 면적으로 산출한 결과 3.85㎡로 조사됨
- 강의실 확보율은 대기평 최소 기본요건 기준값 1.2㎡와 비교할 때 최소요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0년도 강의실 확보율은 3.40㎡로 전년도 대비 계속 증가 추세임

○ 개선방향

- 우리 대학의 경우 일반강의실과 멀티미디어 강의실에 대한 구분이 없는 강점을 지니고 있음. 즉 강의실마다 LCD 프로젝터 및 스크린(고정식), 유무선 마이크 및 스피커, 유·무선 인터넷 PC 사용이 가능함
- 전년도 대비 강의실 확보율이 증가한 이유는 학술정보관 신축 개관에 따른 증가율 상승이 큼
- 실제 수업시 불만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노트북 PC의 고장, 수업준비시간의 단축을 위해 최신 전자교탁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요구됨

4.1.3 실험·실습실 확보율

대학은 실험·실습·실기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실험·실습실의 쾌적한 환경 및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평가 준거	평가 내용	기준 년도	계열	실 수	면적(m ²)	재학 생수	재학생 1인당 면적(m ²)	최소 기본요건 기준값 (A)	현재 수준 (B)	상대점 수 (C)	비고
실험· 실습실 확보율	실험· 실습실 확보 현황	2011	인문사회	22	2,609.94	3,222	①2.43(1/3 계산값)	2.5	5.24	100	
			공 학	30	3,783.53	808	②4.68				
			예·체능	65	7,130.13	827	③8.62				
			합 계		13,523.60						
			평 균		평균산출식 = $\{(3 \times ①) + ② + ③\} / 3 = 5.24$						

【산출공식】

재학생 1인당 실험·실습실 면적(m²) (B) = $\frac{\text{실험·실습실 면적(m}^2\text{)}}{(\text{학부 정원 내외} + \text{대학원}) \text{재학생수(명)}}$
(단, 야간 및 계절제 대학원생은 제외)

○ 분석결과

- 2011년도 재학생 1인당 실험·실습실 확보 현황은 인문사회 2.43m², 공학 4.68m², 예·체능 8.62m²로 조사됨
- 실험·실습실 확보율은 대기평 최소 기본요건 기준값 2.5m²와 비교할 때 공학계열과 예·체능계열은 최소요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문사회계열은 약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됨
- 2010년도 실험·실습실 확보율은 인문사회 2.58m², 공학 5.59m², 예·체능 9.12m²로 전년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년도 대비 실험·실습실 확보율이 감소한 이유는 실험·실습실 면적은 증가하지 않은 가운데 재학생수가 인문사회계열 182명, 공학계열 136명, 예·체능계열 45명 증가하였기 때문임

○ 개선방향

- 인문사회계열은 계열의 특성상 실험·실습 보다는 강의실 및 세미나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어 별도의 실험·실습실이 필요하지 않은 측면도 있으나 총 학생수 대비 법정 최소 확보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 실험·실습실 확보율은 공간적 확보율도 중요하지만 실험·실습실의 안전유지·관리 및 안정성 확보와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훈련도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대한 내규 정돈 및 사고 예방 교육이 필요함
- 각 계열별 실험·실습실의 공동 활용 및 운영의 효율성, 기타 부족한 실험·실습실 보완의 충실성 등 질적 평가 점검사항을 보완할 필요성이 요구됨

4.1.4 실험·실습 기자재 구비 정도

대학은 실험·실습·실기에 대한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구비하고 있다.

평가 준거	평가 내용	계 열	금 액(천원)(A)				재학생수(B)				재학생 1인당 구입비 (원) (A/B)=C	재학생 1인당 등록금 차액 15%(D)	현재 점수 (C/D)	상대 점수	비고
			2008	2009	2010	계	2008	2009	2010	계					
실험 실습 기자 재구 입 정도	실험 실습 기자 재 구입 비	공학	644,958	460,755	302,246	1,407,958	778	668	672	2,118	664,758	276,600	1.6	100	정량
		예·체능	141,523	223,641	113,911	479,075	621	710	782	2,113	226,727				
		합계	786,481	684,396	416,156	1,887,033	1,399	1,378	1,454	4,231	446,002				
		인문 사회	149,552	2,994	31,451	183,997	2,880	2,921	3,040	8,841	20,812				

※재학생 1인당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기준값

재학생 1인당 등록금 평균		등록금 차액 (B-A)	등록금 차액의 15% (B-A)×0.15
인문사회계열(A)	공학계열(B)		
7,026,000	8,870,000	1,844,000	276,600

○ 분석결과

- 계열별 3년간 실험실습 기자재 재학생 1인당 구입비는 446,002원으로 조사됨
- 계열별 재학생 1인당 등록금 차액의 15%는 276,600원으로 조사됨
- 재학생 1인당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를 등록금 차액의 15%와 비교할 때 등록금 차액보다 재학생 1인당 기자재 구입비가 높게 나타나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정도가 충족한 것으로 판단함
-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는 재학생수 대비 공학계열이 가장 높고 예·체능계열과 인문사회계열 순으로 나타남
- 공학계열은 재학생 감소추이에 따른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감소 경향이 있으며, 예·체능계열은 재학생 증가추이에 비해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가 오히려 감소경향이며, 인문사회계열은 재학생수가 가장 많고 증가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계열에 비해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가 적게 나타남

○ 개선방향

- 인문사회계열은 계열의 특성상 실험·실습 보다는 강의실 및 세미나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어 별도의 실험·실습기자재가 필요하지 않은 측면도 있으나 전자교탁, 다양한 세미나 장비 및 수업도구 등 첨단 수업기자재를 설비 또는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예·체능계열은 체육관, 헬스장 및 영화 스튜디오 시설 등을 수업 뿐만 아니라 수익사업 모델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뷰티디자인학부의 신설로 인한 예·체능계 재학생수의 증가로 실험실습비 확대가 필요함

대학은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기숙사, 체육시설, 기타 복지시설 등을 구비하여 학생들의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다.

4.2.1 기숙사 확보 현황

대학은 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숙사 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평가준거	평가내용	기준 년도	수용 인원(명)	재학생수	최소 기본요건 기준값 (A)	현재 수준 (B)	상대점수 (C)	비고
기숙사 확보현황	기숙사 수용율	2011	92	5,058	10%	1.8%	18	

【산출공식】

$$\text{기숙사 수용율 (B)} = \frac{\text{수용인원(명)}}{(\text{학부정원 내외} + \text{대학원})\text{재학생수(명)}} \times 100$$

(단, 계절학기 수강생, 특수대학원생은 제외)

○ 분석결과

- 2011년도 우리 대학의 기숙사 수용율은 1.8%로 조사됨
- 기숙사 수용율은 대기평 평가준거로 진단할 때 최소 기본요건 기준값 10%에 미흡함
- 대기평 기준치에서 제시한 사립대학(170개) 평균 1,253.12명, 5천-1만 미만 대학(67개) 1,440.87명에 훨씬 미치지 못하며, 재학생 대비 기숙사 수용인원 비율도 사립대학(170개)은 31%, 5천-1만 미만 대학(67개)은 18.30%로서 10배 이상 부족함

○ 개선방향

- 기숙사 수용율은 대학정보공시 자료이기 때문에 특별 관리가 요구됨
- 대기평 기준치로 볼 때 기숙사 수용율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재수준보다 5배 이상 기숙사 시설을 확보해야함
- 우리 대학의 경우 지정학적인 위치로 볼 때 수도권에 있으며 학생들의 출신고교 및 현재 주거지가 대부분 서울 및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어 기숙사 시설에 대한 의존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숙사 시설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학교 정문 앞 학교부지로 구입한 주택 및 건물을 일부 기숙사시설로 전환하거나 별도의 기숙사 건립 계획을 추진할 필요성이 요구됨

4.2.2 학생 복지시설

대학은 다양한 학생복지시설을 구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다.

평가준거	평가내용	기준 년도		구분	현재수준 (B)(㎡)	최소기본요건 기준값(A)	상대 접수(C)	비고
학생복지 시설	학생복지 시설확보 현황	2011	용 도 별 명 칭	학생식당	525.00	5,828.40		중생관 지하
				신유관 기숙사식당	473.04			신유관 2층
				매점	291.60			중생관 지하 90 기념관 1층 201.6
				커피전문점(카페베네)	225.00			학술정보관 6층
				체력단련실	382.23			헬스장 254.41 (발코니포함)·무도실 127.82
				학생회관	3,547.07			학생회관 1,2,3층
				체육관	1,654.90			학생회관 4층,5층
				Job center	130.51			학생회관 1층
				Global center	205.42			학생회관 1층
				휴게실	219.60			기념관 1층 201.6 중생관 지하18
				보건진료소	64.52			학생회관 2층
				복사실	20.25			운동장 사열대
				문구점	60.00			중생관 지하
				총면적	7,799.14	5,828.40	100	학생복지시설 최소기본요건 기준값=강의 실확보율 기준값(1.2㎡)×재학생수

○ 분석결과

- 2011년도 우리 대학 학생 복지시설 시설별 총 면적 현황은 7,799.14㎡로 조사됨
- 전년도 대비 학술정보관 신축으로 커피전문점(카페베네)이 들어서면서 복지시설면적이 증가함
- 학생 복지시설은 학생식당, 휴게실, 서점 등 복지시설이 비교적 다양하고 적절하게 갖춰져 있고 쾌적한 환경과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음

○ 개선방향

- 학생 복지시설 직원의 서비스 교육 및 이벤트 지원 확대, 각종 프로그램 참여 독려가 필요함
- 학생들의 요구사항 및 불만사항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 보완이 요구됨

평가부문

4.3 도서관

4.3.1 도서관 운영

대학은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자료구입 예산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은 학생과 교수들의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외 도서 및 비도서, 전자자료, 정기간행물 등을 구비하고 있다. 도서관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평가준거	평가내용	기준 년도	최소 기본요건 기준값 (A)	현재 수준 (B)	상대점수 (C)	비고
도서관 운영	재학생1인당 연간자료구입비(원)	2011	50	81	100	학술정보통 계시스템 자료활용
	재학생 1,000명당 도서관 직원수		1.0	0.8	80	

【산출공식】

$$\text{재학생 1인당 연간자료구입비(천원) (B)} = \frac{\text{자료구입비(천원)}}{(\text{학부 정원 내외} + \text{대학원})\text{재학생 수(명)}}$$

【산출공식】

$$\text{재학생 1,000명당 도서관 직원수(명) (B)} = \frac{\text{도서관 직원수(명)}}{(\text{학부 정원 내외} + \text{대학원})\text{재학생 수(명)}} \times 1000$$

○ 분석결과

- 2011년도 재학생 1인당 연간자료구입비는 81,000원으로 조사됨
- 연간자료구입비는 2010년도 대비 90,000원에서 약간 감소하였으나 대기평 최소 기본 요건 기준 값 50,000원과 비교할 때 훨씬 상회하는 수준임
- 2011년도 재학생 1,000명당 도서관 직원수는 0.8명으로 조사됨
- 재학생 1,000명당 도서관 직원수는 대기평 최소 기본 요건 기준값 1명과 비교할 때 약간 미흡한 수준임

○ 개선방향

- 도서관 운영은 재학생 1인당 연간자료구입비의 경우 최소 기준 이상으로 상당히 충족하고 있으며, 재학생 1,000명당 도서관 직원수의 경우는 1명 정도 추가로 충원이 요구됨
- 도서관 시설 및 정보화 환경을 위한 도서관 행정제도 개선, 시스템 정착화가 필요함
- 학술정보통계시스템의 대학도서관통계 자료를 이용한 정보 확보 및 타 대학도서관 정보시스템(외국도서관 포함) 정보 확대가 요구됨
- 학술정보관 활용실태 및 이용만족도 조사 그리고 의견수렴을 통한 시스템 확대가 필요함
- 보다 다양한 해외 DB 구축 및 e-Book 구축이 요구됨

4. 학교시설영역 종합토론 및 논의

대학은 학생들이 최상의 교육환경에서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사시설,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도서관 등이 충분히 확보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우리 대학이 작지만 큰 대학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학교시설을 갖춰 경쟁력있는 대학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우리 대학은 다소 부족한 학교시설 영역이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내실있고 효율적인 학교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기숙사 같은 경우 지정학적인 이유와 학생들의 주거위치가 학교와 근접해 있어 그 수요가 크지 않았으나 앞으로 기숙사뿐만 아니라 부족한 지원시설은 교사건립계획 및 예산 확보 그리고 효율적인 교사운영을 통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학교시설 분야의 평가준거를 토대로 우리 대학의 현재수준을 가늠해보고 개선방향을 기술하였다. 학교시설에 관한 업무분담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학교시설 관리를 위한 다각적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교육기본시설(필수평가 준거)

- 재림관 리모델링, 기숙사 신축과 같은 충분한 교사확보계획, 적립금 중 교사신축비 확보, 교사운영의 효율성 등 점검사항 보완

○ 교육지원시설

- 기숙사 수용율은 현재수준보다 5배 이상 기숙사시설 확보
- 학생복지시설은 비교적 다양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 학생들의 요구사항 및 불만사항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 보완

○ 도서관

- 재학생 1인당 연간자료구입비는 충족. 재학생 1000명당 직원수는 1명 추가 충원
- 도서관 시설 및 정보화 환경을 위한 도서관 행정제도 개선, 시스템 정착화 보완

5. 대학재정

5.1 대학재정부문 평가 결과

평가 영역	평가 부문	평가준거	평가내용	기준 년도	최소 기본요건 기준값 (A)	현재 수준(B)	상대 점수(C)	비고
5.대학 재정	5.1 재정 확보	5.1.1 세입 중 등록금비율(결산) ¹⁾	세입 중 등록금비율	2010	72%	88.28%	77.39	
		5.1.2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수익율	기본재산 확보율	2010	15%	7.37%	49.13	
			기본재산 수익율	2010	0.6%	1.45%	100	
		5.1.3 세입 중 기부금 비율	세입 중 기부금 비율	2010	0.4%	1.35%	100	
		5.1.4 세입 중 법인전입금 비율	세입 중 법인전입금 비율	2010	0.15%	0.28	100	
	5.2 재정 집행	5.2.1 교육비환원율(결산) ²⁾	교육비환원율	2010	90%	83.63%	92.92	
		5.2.2 장학금 비율 ²⁾	장학금 비율	2010	10%	10.55%	100	
					영역평균값		83.74	

1) $C=[1+\{(A-B)/A\}] \times 100$ 으로 산정함

2) 필수평가준거

평가영역 대학재정 및 경영

대학은 법인전입금, 수익용재산의 확보 및 운영, 기부금, 발전기금 등 다양한 세입원을 통하여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확보된 세입은 학교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감사제도를 활용하는 등 많은 감시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하여 등록금을 환원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장학금이 있다.

■ 평가부문

5.1 재정확보

5.2 재정집행

평가부문 5.1 재정확보

대학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법인전입금, 기부금, 발전기금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한 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재원의 다양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5.1.1 세입 중 등록금 비율

대학의 세입 중 학생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학의 특성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이다.

평가준거	평가내용	기준 년도	등록금 수입	교비수입	최소 기본요건 기준값 (A)	현재 수준 (B)	상대점수 (C)	비고
세입 중 등록금 비율	세입 중 등록금 비율	2010	46,044,210	52,159,678	72%	88.28%	77.39	

【산출공식】

$$\text{세입 중 등록금 비율(\%)} (B) = \frac{\text{등록금수입(천원)}}{\text{교비수입(천원)}} \times 100$$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한 수준

○ 분석결과

- 우리 대학의 2011년도 교비수입은 522억원이고 그 중에 등록금수입은 460억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세입 중 등록금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88.28%의 수준으로 나타나 최소기준으로 제시된 72.0%의 수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대기평 인증자료에서 제시한 전체대학(201개)평균 63.47%에 미치지 못한 수준으로 나타난 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짐
- 세입원의 다변화 노력 등을 통해 등록금에 대한 의존율을 낮출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개선방향

- 세입 중 등록금수입의 비율은 필수평가준거는 아니나 재원구조의 다변화 등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바 좀 더 집중적인 관리가 있어야 함
- 등록금수입의 비율을 낮추는 것이 최선이나 이는 대학운영과정에서 필요한 일정수준 이상의 재원 확보와 연계되어 있는 바, 보다 다양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등록금의 경우 대학별로 인하의 움직임(주성대 5.1%, 목원대 5% 등)이 있고 국가 정책적으로도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바, 인하하는 대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인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함으로써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재원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5.1.2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수익율

대학은 관련 법령에 의거 수익용 기본재산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고 있다.

평가준거	평가내용	기준 년도	기준액	보유액	최소 기본요건 기준값 (A)	현재 수준 (B)	상대점수 (C)	비고
수익용 기본재산확보 및 수익율	수익용기본재 산 확보율(%)	2010	50,893,782	3,751,072	15.0	7.37	49.13	

평가준거	평가내용	기준 년도	평가액	순수익액	최소 기본요건 기준값 (A)	현재 수준 (B)	상대점수 (C)	비고
수익용 기본재산확보 및 수익율	수익용기본재 산 수익율(%)	2010	3,751,072	54,274	0.6	1.45	100	

【산출공식】

$$\text{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B)} = \frac{\text{보유액}}{\text{기준액}} \times 100$$

$$\text{수익용기본재산 수익율(%) (B)} = \frac{\text{순수익액}}{\text{평가액}} \times 100$$

○ 분석결과

-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은 7.37%로 대기평 기준치인 15.0%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있어야 함
-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을 보면 1.45%로 대기평 기준치인 0.6%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및 수익률 모두 전년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바, 좀 더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함

○ 개선방향

- 우리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형태를 수익창출형 구조로 전환하여야 함
 - 대기평 기준에 의하면 현재는 15%의 수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향후 50%수준으로 될 것인바 보다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할 것임
- 동시에 수익용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대기평에서 제시하고 있는 0.6%의 기준이 향후 3.5% 수준으로 상승될 예정인 바 보다 적극적인 활용노력이 필요함

5.1.3 세입 중 기부금 비율

대학은 일정 수준 이상의 기부금을 확보하고 있다.

평가준거	평가내용	기준 년도	교비수입 (천원)	기부금총액	최소 기본요건 기준값(A)	현재 수준 (B)	상대점수 (C)
세입 중 기부금 비율	세입 중 기부금 비율	2010	52,159,678	706,212	0.4	1.35	100

【산출공식】

$$\text{세입 중 기부금 비율(B)} = \frac{\text{기부금총액(천원)}}{\text{세입총액(천원)}} \times 100$$

○ 분석결과

- 2010년도 교비수입을 보면 522억원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중 기부금 수입은 7억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기부금 수입의 비율을 보면 1.35%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대기평기준치인 0.4%보다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나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음
- 향후 2% 수준으로 대기평 수준이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지표값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보다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함

○ 개선방향

- 동문회의 적극 활용, 지역기업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의 형성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기부금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특별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도 기부금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임

5.1.4 세입 중 법인전입금 비율

대학은 일정수준 이상의 법인 전입금을 확보하고 있다.

평가준거	평가내용	기준 년도	교비수입 (천원)	법인전입금 총액	최소 기본요건 기준값(A)	현재 수준 (B)	상대점수 (C)
세입 중 법인전입금 비율	세입 중 법인전입금 비율	2010	52,159,678	145,000	0.15	0.28	100

【산출공식】

$$\text{세입 중 법인전입금 비율(B)} = \frac{\text{법인전입금(천원)}}{\text{교비수입(천원)}} \times 100$$

○ 분석결과

- 2010년 결산기준 교비수입은 522억원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중 법인전입금 수입은 1억 5천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분석결과 법인전입금비율은 0.28%로 나타나 대기평 기준치인 0.15%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향후 대기평 목표제시수준이 0.15%에서 2.8%수준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인 바, 어려움이 봉착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전년도에 비하여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난 바, 법인전입금 확충에 관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됨

○ 개선방향

- 법인전입금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
- 법인전입금을 상향조정하되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형태의 재산(토지 등)을 수익창출형 재산으로 전환하고 사업을 통하여 창출된 수입의 일정부분을 전입시키는 대안임

평가부문 5.2 재정집행

대학은 교육과 연구활동을 위하여 확보한 재원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대학의 존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5.2.1 교육비 환원율(필수평가준거)

대학은 대학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평가원이 제시한 수준 이상으로 교육비를 환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평가준거	평가내용	기준 년도	등록금수입 (천원)	직접교육비 (천원)	최소 기본요건 기준값(A)	현재 수준 (B)	상대점수 (C)
교육비환원율	교육비 환원율	2010	45,256,833	37,847,336	90	83.63	92.92

【산출공식】

$$\text{교육비환원율(\%)} (B) = \frac{\text{직접교육비(천원)}}{\text{등록금(천원)}} \times 100$$

*직접교육비: 교비회계(보수,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입시관리비 제외), 교육외비용), 산학협력단회계(산학협력비, 보조사업비, 일반관리비(학교회계전출금 제외), 운영외비용)

*등록금: 교비회계의 등록금 수입 총액, 단, 평생교육원 등 수료과정(비학위과정)의 단기 수강료 수입은 제외

○ 분석결과

- 2010년 등록금 수입은 45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직접교육비는 378억원인 것으로 나타남
- 분석결과 등록금환원율은 83.63%인 것으로 나타나 대기평이 제시한 최소기준치 90.0%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개선방향

- 등록금 환원율은 장학금과 연계되어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등록금환원율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장학금의 지급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장학금 사냥대회 또는 각종 공모대회 개최(분야: 학업성취도분야, 학교조경분야, 학교인지도 제고분야, 축제 등 학교행사실효성 제고분야, 채플참여도 제고분야 등)
- 다음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미취업졸업생을 대상으로 행정조교 채용, 교수의 논문실적향상을 위한 논문공모 및 시상 등이 될 것임

5.2.2 장학금비율(필수평가준거)

대학은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는 한편 학업을 독려하기 위하여 대학평가원이 제시한 수준 이상으로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다.

평가준거	평가내용	기준 년도	등록금수입 (천원)	장학금 (천원)	최소 기본요건 기준값(A)	현재 수준 (B)	상대점수 (C)
장학금비율	장학금비율	2010	45,256,833	4,773,731	10	10.55	100

【산출공식】

$$\text{장학금 비율}(\%) \text{ (B)} = \frac{\text{장학금(천원)}}{\text{등록금(천원)}} \times 100$$

*장학금: 교내장학금(학비감면, 내부장학금, 근로장학금)과 교외장학금(사설 및 기타)을 모두 포함하는 금액

*등록금: 교비회계의 등록금 수입 총액, 단, 평생교육원 등 수료과정(비학위과정)의 단기 수강료 수입은 제외

○ 분석결과

- 2010년 등록금 수입은 45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장학금은 48억원인 것으로 나타남
- 분석결과 장학금비율은 10.55%인 것으로 나타나 대기평이 제시한 최소기준치 10.0%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개선방향

- 장학금은 등록금환원율과 연계되어 있는 지표임
- 대기평이 제시한 기준치를 충족하고 있으나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고 전년도에 비하여 높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바,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 특히, 장학금은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는 수단이 될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장학금은 상호 경쟁을 통하여 장학금지급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경쟁요소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성적장학금, 각종 교내 공모대회 등)

5. 대학재정 영역 종합토론 및 논의

대학이 설정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중에 하나는 재정이 될 것이며, 성결대학교 역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부금, 수익용재산의 확보 및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동시에 확보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원하는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하여 그리고 기부금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대기평에서 제시한 기준을 모두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장학금의 비율이 다른 학교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세입 중 등록금의 비율이 다소 높은 수준이고,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향후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세입 중 등록금 비율
 - 등록금의 의존율을 낮추기 위하여 다양한 세입원의 확보
 - 동문회, 지역기업 등과 연계한 기부금, 발전기금의 확보 노력 전개
-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 재산의 보유형태를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형태로 전환
 - 수익용재산의 적극적 활용으로 수익창출 필요
- 발전기금 조성
 - 동문회, 지역기업 등과 연계한 발전기금 확보 노력 전개
 -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운영
- 교육비 환원을
 - 장학금 사당대회 또는 각종 공모대회 개최(분야: 학업성취도분야, 학교조경분야, 학교인지도 제고분야, 축제 등 학교행사실효성 제고분야, 채플참여도 제고분야 등)
 - 미취업졸업생을 대상으로 행정조교 채용, 교수의 논문실적향상을 위한 논문공모 및 시상 등

6. 사회봉사 및 특성화

1. 사회봉사 및 특성화 영역 평가결과

평가 영역	평가 부문	평가준거	평가내용		기준년도	기준값 (A)	현재수준 (B)	지표 점수	비고
6. 사회봉 사 및 특성화	6.1 사회봉 사 및 특성화	6.1.1 사회봉사 및 특성화 정책 수립	학교특성과 연계			3.5	5.0	100	정성 ⁴⁾
			정책 및 계획 마련			3.5	4.5	100	
		평가준거	평가내용		지표값		목표값	지표 점수	비고
					2009	2010			
		6.1.2 사회봉사 및 특성화 실적 평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 정도		82,500천원	87,500천원	86,660천원	100	정량 ⁵⁾
			구성원의 참여 실적	국내	680 ⁶⁾ 시간	568시간	714시간	95.23	
				해외	552시간	496시간	580시간	95.17	
						영역평균값		98.08	

4) 정성지표를 5점 척도로 정량화함: 매우 충족(5), 충족(4), 보통(3), 미흡(2), 매우 미흡(1) 중 70% 수준인 3.5를 기준 값으로 정함.

5) 목표 값=전년대비 5% 상승, 지표점수=지표 값이 목표 값과 크거나 같으면 만점, 적으면 벗어난 정도를 점수로 부여: (지표 값/목표 값) x 100.

6) 1일 봉사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해 참가인원에 곱함.

평가영역 6. 사회봉사 및 특성화

대학은 학교특성을 고려한 사회봉사 정책 및 계획을 마련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추진하여 사회에 대한 책무성을 완수하고 있다.

■ 평가부문

6.1 사회봉사 및 특성화

평가부문 6.1 사회봉사 및 특성화

대학은 학교특성을 고려한 사회봉사 정책 및 계획을 마련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지원·추진하여 사회에 대한 책무성을 완수하고 있다.

6.1.1 사회봉사 및 특성화 정책 수립

대학은 학교특성을 고려한 사회봉사 정책 및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 평가내용

학교특성과 연계여부

정책 및 계획 마련여부

○ 분석결과

- 우리 대학의 사회봉사 정책은 대학의 설립이념을 바탕으로 학교특성화로 규정되었기에 6영역에서 다름
- 비교적 오랫동안(2003년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발전, 추진하고 있어 구성원의 인지도가 높음(『2009 자체평가연구보고서』 3장 1.2 대학 특성화 참조)
- 사회봉사 및 특성화 정책은 혁신도입기(2003-05년), 성장기(2006-08년), 안정기(2009-12년)로 연도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음(『2009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참조)
- 사회봉사활동은 하계·동계 국내 및 해외봉사, 해외 인턴십, Research project program, 물 봉사활동(2009년 태백정선 지역), 법무부 주관 ‘세계인의 날’ 자원봉사 등 다양함
- 사회봉사 및 특성화는 궁극적으로 우리 대학의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개선방향

- 『성결 2012 비전과 도전』에 이어 『성결비전 2022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었기에 특성화 목표 및 전략에 대한 업그레이드나 재고가 요청됨

6.1.2 사회봉사 및 특성화 실적 평가

대학은 구성원들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사회봉사 참여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지원·추진하고 있다.

■ 평가내용

행정적 재정적 지원 정도
구성원의 참여 실적(최근 3년)

○ 분석결과

- 사회봉사 및 특성화 실적 평가는 평가의 근거가 추진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므로 예산대비 집행율로 평가할 때 해마다 소폭이지만 계속 확대되고 있음(2009년 82,500,000원, 2010년 87,500,000원, 2011년 90,000,000원)

7) 사회봉사에 예산

- 구성원의 사회봉사 참여 실적은 국내봉사단 115명, 해외봉사단 95명, 법무부 주관행사 자원봉사 53명, 본교외국인 학생대상 한국어교육봉사 2명(올해 인원 제외), 자매대학 한국어보조교사 파견 3명(올해 인원 제외), 로터리클럽 교환학생 대상 한국어교육봉사 21명 등 최근 3년간 활발히 이루어짐
- 2007-2009년 대비 최근 3년 실적을 비교할 때 해외봉사단 파송 실적이 86명 대 95명으로 증가함 (『2009 자체평가연구보고서』 3장 1.2 대학 특성화 참조)
- “글로벌센터 2009-2011 사회봉사 관련 프로그램 운영현황 보고자료” 참조

○ 개선방향

- 해외인턴십의 경우 아직 역사는 짧지만 인턴 주요 업무가 선교실습, 행정 보조, 단순노동 등에 편중된 점은 개선되어야 하고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직무로의 확대가 필요함
- 학생 해외봉사 및 국내봉사의 실적을 쌓을 수 있는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봉사기간 및 봉사난이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실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시상하는 등 봉사 참여도를 높이는 제도를 마련해야 함

2. 사회봉사 및 특성화 영역 종합토론 및 논의

대학은 학교특성을 고려한 사회봉사 정책 및 계획을 마련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추진하여 사회에 대한 책무성을 완수해야 한다. 우리 대학은 1998년 1주기 대학종합평가에서 사회봉사 영역 최우수 평가 등급을 받았고, 사회봉사를 특성화로 지정해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교육목적에 사회봉사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개발이 필요하고, 구성원들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사회봉사 참여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지원·추진해야 한다.

○ 사회봉사 및 특성화 정책 수립

- 시대 변화와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특성화 목표 및 전략에 대한 업그레이드나 논의 필요

○ 사회봉사 및 특성화 실적 평가

- 해외인턴십 업무의 다양화 및 전문화 필요
- 봉사기간 및 난이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용, 봉사참여도를 제고할 필요